

제2장

朝鮮初期 漢陽定都와 首都의 象徵化

임덕순(충북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1. 머리말

首都는 보통 도시와는 그 機能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수도의 기본적인 기능은 全國 統治인데, 그 기능은 곧 해당국가의 발전이나 멸망, 그리고 國際 社會에서의 位相提高나 추락 등과 같은 국가성쇠에 직결되어 있다.

금년 1994년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首都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보통 해가 아닌 100년이 여섯번째 다가오는 금년에 옛날 漢陽 고을이 어떠한 過程을 거쳐, 어떠한 理由로 朝鮮의 首都로 정해졌는지를 地理學的으로 탐구해 보는 일은 크게 뜻있는 일이다.

또한 한양이 수도 漢城으로 되면서 首都景觀에 〈朝鮮의 首都〉로서의 理念的 象徵性이 어떤 모양으로 박혀졌는지를 구명해 보는 일도 地理學上으로나 실제 통치효용면에서 보아 가치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탐구는 定都 500년의 해였던 1894년에는 한국에 近代地理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였고, 그 후 100년이 지난 정도 600년의 해인 이번에는 〈우리의〉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가능케 되었으니 실로 뜻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 本稿는 ① 우선 漢陽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기까지의 決定과정과 그 결정의 政治地理的 이유를 살펴보고, ② 당시 수도 漢城

(한양이 수도로 되면서 개명됨)이 理念的 象徴面에서 어떤 양상으로 造成되었는가를 탐색해 봄으로써 서울이 조선초에 확보한 首都性을 분명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首都性이란 首都地位, 首都性格(類型), 수도 만이 소유하는 象徴性 등을 합해서 보는 複合的 概念이다.

이같은 수도성 연구는 首都 政治地理學의 제1차적인 연구거리에 해당된다.¹⁾ 본 연구에는 주로 太祖 및 世宗實錄, 高麗史, 朝鮮經國典, 經國大典, 漢京識略,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古文獻과 大東輿地全圖, 四山禁標圖 등 古地圖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景福宮을 비롯한 4대문 안팎의 현장답사도 수행되었다.

2. 漢陽定都의 결정과정과 政治地理的 理由

(1) 定都以前 漢陽의 政治的 地位

여기서는 우선 조선의 수도로 되기 전 한양의 都市의 내지 政治的 地位가 어떠한지를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일찌기 한양은 그 동쪽 외곽(위례)이 熊津(公州)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百濟의 첫 首都였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다시 高麗朝 文宗 21年(1067)에는 三京의 하나로서 南京의 地位를 얻었다. 그 地位획득을 계기로 근방의 郡民들이 남경으로 이주되기도 하였다.²⁾ 당시 三京은 開京(현 개성; 首都), 西京(평양), 南京이었다.

그러니까 한양은 고려 때, 政治地理學의 개념으로 보면 <三首都制>下에서 그 三首都의 하나였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곳이다. 비록 그 삼수도제하의 개경 外 두 수도는 상징적이고 명목상의 것으로서 實勢는 확보치 못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분명 三首都의 하나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와 같은 일이 있는 후 11세기말-12세기에 이르러 고려 開京의 地氣 쇠퇴설과 조정의 政治無能이 맞물려 他處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本格的으로 일어났는데, 그 중에도 중요한 것만 제시해 보면 11세기 말인 肅宗 1년

1) 任德淳, 1983, "韓國 首都 研究에 대한 方法論的 論議," 地理學論叢, 제10호, 서울大學校 地理學科, pp. 145-146.

2) 高麗史節要, 卷之五, 文宗 21年 12月條.

에 風水大家 金위제가 年中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南京(한양) 순주를 권한 일과 숙종 6년(1101)의 南京開創都監의 설치에 이어 崔사추(문하시랑 평장사)가 三角山 남쪽 현 景福宮 터 일대에 新首都 터를 추천한 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숙종 9년에는 남경궁궐이 완성되어 왕이 7-10월에 남경신궁에 머물렀다가 개경으로 돌아간 일까지도 있었다.³⁾

그런데 당시 南京 新首都論이나 그 곳으로의 일시 순주는 한양이 지녔다고 믿어졌은 〈風水上的 吉地性〉에 의한 것이었다.

그 후 고려 高宗 때 이르러 남경순주나 남경행차는 중단되었고, 忠烈王 34년(1308)에는 남경이 漢陽府로 격하된 일이 있었다. 말기인 공민왕 때에는 다시 중요시되어 同王 2년(1360)에는 한양천도를 단행하려고까지 했었다.⁴⁾

고려의 마지막 왕인 恭讓王 때 또 다시 한양천도론이 대두되고 同王 2년(1390)에는 그前 우왕 8년(1382) 때와 마찬가지로 一時的이긴 하였지만 한양천도를 決行한 일이 있었다.⁵⁾ 그때의 천도 이유는 개경의 地氣가 쇠퇴하였다는 점과 개경이 우왕 및 창왕 두 임금의 폐위당한 흉한 터였다는 데 있었다. 이상이 首都가 되기 前의 한양이 지닌 都市的 및 政治的 지위였다.

한양(서울)은 이처럼 새 왕조 조선의 首都가 되기 전에 이미 風水上的 吉地性 덕분에나 全國統治上的 有效한 위치 덕분에 일시적 또는 명목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취락의 대접을 받은 바가 있었다.

(2) 漢陽定都의 決定過程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던 고려 말기에, 實力者 名將 李成桂는 君主國家에서 王의 姓을 바꾸는 혁명, 즉 易姓革命에 의해서 李氏 姓을 갖고 공양왕 4년(1392) 7월 17일(음력: 이하 같음)에 高麗國의 王位에 올랐다. 그리고 채 1개월도 못되어 首都를 他處로 옮길 것을 都評議使司(의정부 前身)에 명하였다.

國名 改稱보다도 천도를 더 서둘렀던 것이다. 천도를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나라이름이 “朝鮮”으로 바뀐 것이 즉위 1년 후(1393)였던 것을 고려할

3) 高麗史節要, 卷之六, 肅宗 1年 8月條, 同 6年 9月~10月條.; 高麗史, 十一, 肅宗 6年 9月 甲申條 乙未條.; 高麗史, 十二, 肅宗 9年 5月 甲午條, 7月 戊戌條, 8月 壬子條, 10月 辛亥條.; 高麗史節要, 卷之七, 肅宗 9年 5月-10月條.

4) 李丙燾, 1954, 高麗時代의 研究, 乙酉文化社, pp. 301-305.

5) 金龍國, 1957, “서울眞都의 동기와 전말,” 鄉土서울, 제1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p. 71-72.

때 천도는 실로 新王 이성계에게는 대단히 절실한 必要事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遷都理由에 관한 상론은 뒤에 펴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양이 수도로 선정되기까지의 政治的 決定過程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장군 이성계가 새로이 군림하게된 王國, 즉 종말기의 고려는 그전부터 누적되어온 國內 情勢상의 곤경에다 역성혁명으로 인한 正統性的 난제까지 겹쳐져 있는 상태여서 신왕 이성계는 가능한 한 속히 국내정치 정세를 安定基調위에 올려놓아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 막중의 과제를 제대로 속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君臣과 人民 모두에게 心機一轉이 될 만한 <大 조치>가 절실히 요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정에서 채택된 조치가 바로 개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천도결정이었으니 실로 그것은 엄청난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1) 계룡산 南地의 일시적 選好 : 權仲和의 추천과 河崙의 반대

맨 먼저 新王이 제1의 수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은 당시 吉地명성을 지닌 漢陽이었다. 한양으로 천도를 서두르라는 식의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에 대해서 裒극렵과 趙浚(둘 다 시중)이 한양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면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한양에 궁궐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성곽이 완전하지 못하다.

둘째, 호위하는 사람들이 民家를 차지해야 하는데, 天候는 추워지고 백성은 갈 곳이 없으니 不可하다.

셋째, 宮室과 성곽을 건축하고 각 관아를 설치한 후에 首都를 이전하는 것이 옳다.⁶⁾

두 사람의 고위 중신이 백성이 당할 곤경을 생각하고 행한 忠言을 왕이 쾌히 수용, 한양천도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權仲和(태실증고사)가 바친 계룡산 都邑地圖를 보고 王은 계룡산 남쪽의 땅을 몸소 답사한 후, 그 땅에 매료되어 거기를 새 수도의 터로 정하게 되었다. 당시 계룡산 南地 친답은 여러 후보지 친답 중 이성계의 첫번째 친답이었다. 천도의 필요를 강하게 느껴오던 중 계룡산 도읍지도를 보고 그

6) 太祖實錄, 卷第二, 太祖 1年 9月 己卯條.

산에 크게 끌렸던 것이다.

계룡산에 매료된 이유는 무엇인가? 계룡산은 그 山勢가

첫째, 소위 回龍顧祖의 산세, 즉 龍(산)인 계룡산이 되돌아 祖山을 바라다 보는 C字 形의 산세인 데다가

둘째, 山太極 水太極의 형세, 즉 산맥이 태극형처럼 曲脈을 이루고 물길도 曲流를 이룬 형세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계룡산 南地로의 천도는 수도 조성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10개월 후 결국 중단되고 말았는데, 그 중단에는 河崙(경기 좌우도 도관찰사)의 아래와 같은 反對論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계룡산은 그 位置가 全國 중 南方에 치우쳐 있어서 국토의 東西北 各 方面까지의 거리가 멀다.

둘째, 風水學으로도 계룡산 터는 산세와 水流의 방향이 나쁘다. 특히 수류의 방향이 패망이나 쇠약을 초래하는 소위 水破長生 衰敗立地의 땅이다.⁷⁾

앞의 지적은 계룡산 터가 전국통치에 有利한 中央的 위치가 되질 못하고 偏心的 위치의 땅이어서 수도 터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뒤의 지적은 首都풍수설에 의하면 산의 방향과 水(江)의 방향이 서로 <逆의 관계>를 이루는 것 외에, 특히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은 吉方이 아닌 凶方이어야 하는데, 계룡산 山下의 물흐름은 그 방향이 위의 반대로서 巽方(남동방)에서 흘러나가므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계룡산 터는 山勢 水流가 吉과 凶이 반반씩이므로 수도를 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태조는 이섭기는 하지만 하륜의 반대론을 받아들여 계룡산 山下의 10개월 진행 중인 수도조성 공사를 중단시켰다. 당시 공사 때의 궁궐 건축용 柱礎石들은 지금도 110여개나 신도안에 남아있어 그 옛일을 증언해 주고 있다(그림 2-1).⁸⁾

2) 母岳地에 대한 열띤 論議 : 河崙의 추천과 劉早雨 鄭道傳 등의 반대

太祖는 다시 하륜에게 명하여 다른 후보지를 물색토록 하였는데, 그 때 거

7) 太祖實錄, 卷第四, 太祖 2年 12月 壬午條; 任德淳, 1985, 서울의 首都起源과 發展過程, 서울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37.; 元永煥, 1990, 朝鮮時代 漢城府 研究, 江原大學校 出版部, pp. 15-16.

8) 필자는 그 주초석들을 1983년 7월 답사 때 현지 확인한 바 있다.

론된 곳이 母岳(안산) 남쪽, 즉 현 서울 延世大學校 터를 포함한 연희동-신촌 일대였다.

하륜은 주장하기를 무악 땅은 明堂, 즉 左右가 산으로 둘러싸인 穴前方의 뜰이 좁기는 하지만 松京(개성)이나 평양에 비하면 넓으며 풍수지리상으로도 좋은 곳이라고 했다.⁹⁾

그러나 무악 땅에 대한 반대 역시 강해져 最終 決定은 보류되어 오던 중 태조 3년(1394) 7월에 都評議使司가 아래와 같은 주장을 王에게 제시한 일이 있다. 그 주장을 듣고 나서 왕은 음양산정도감이라고 하는 임시기구를 설치, 그 기구가 晝雲觀員과 함께 수도 터를 연구해서 선정해 보도록 명하였다.



그림 2-1 계룡산 南地 신도안 소재 朝鮮 首都 궁궐용 柱礎石
* 공사개시 10개월후 중단되어 그 유물이 현지에 남아있다
(사람 크기와 비교해 볼 것).

9) 太祖實錄, 卷第五, 太祖 3年, 2月 癸巳條.

“地理의 學說이 분명치 못하므로 사람마다 각기 自己意見을 고집하고,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 眞僞를 分辨하기가 어려우며 前朝[고려]에 서로 전하여오는 秘錄 또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여 邪正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¹⁰⁾

왕명을 받은 음양산정도감은 권중화(영삼사사), 정도전(판삼사사), 하륜, 그리고 同 도감의 연구원들과 함께 여러가지 도참설을 수집 참고하여 새 수도 터를 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태조 자신도 무악 땅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곳을 친히 답사하기도 하였으니, 그 답사는 수도 터잡기의 제2차 친답이었다. 그 때 劉旱雨(서운부정)는 尹莘達(판서운관사)이 동석한 가운데 말하기를, 무악 땅은 수도 터로는 적합치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문답에서 잘 알 수 있다.

태조 : “이 곳[무악 땅]이 끝내 不可한가?”

유한우 : “臣의 소견으로는 실로 불가합니다.”

태조 : “여기가 좋지 못하다면 어느 곳이 가한가?”

유한우 : “신은 알지 못합니다.”

태조 : [화를 크게 내면서] “... 松都 地氣의 衰旺에 관한 말을 못 들었는가?”

유한우 : “그것은 圖讖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다만 지리를 배워서 도참은 알지 못합니다.”

태조 : “옛 사람의 도참은 지리에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다. 어찌 근거도 없이 말한 것이겠는가? 그러면 쓸만한 곳을 말해 보라.”

유한우 : “前朝의 태조[왕건]는 松山[개성]의 명당을 살펴서 궁궐을 지었는데, 중엽 이후로는 오랫동안 명당이 폐하여 군왕이 여러 차례 離宮으로 이사했습니다. 명당[송도 명당]의 地德이 아직 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곳에 다시 궁궐을 짓고 松京을 수도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7月, 戊申條.

태조 : “장차 수도를 옮길 결심을 갖고 있다. 근처에 길지가 없다면 옛 三國의 수도들도 길지가 뒤적하니 합의해서 알려 달라.”¹¹⁾

위 문답을 보면 태조의 천도 의지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한우는 무악 땅은 좋지 않으니 개성(송도)을 전과 마찬가지로 수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주장을 강력히 폈다. 松都 明堂이 지덕이 남아있는 데다가 무악명당보다 더 좋다는 견지에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얼마 안있다가 다시 무악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 후보지에 관한 중신들의 소견피력이 있었는데 그 주요 소견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鄭道傳(판삼사사) : 이곳[무악 땅]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漕運교통은 좋지만, 그 터가 한 골짜기에 위치하여 안쪽에 궁침과 바깥 쪽에 朝市, 宗廟, 사직을 세울만한 자리가 없다.

成石璘(문하시랑찬성사) : 이 곳[무악 땅]은 ...명당이 기울어지고 좁으며 後山[主山, 즉 무악]이 낮아서 규모가 王者의 수도에는 적합치 못하다. 부소[송도] 명당에 본궐을 짓는 것이 좋다.

鄭摠(정당문학) : 王씨가 500년에 끝나는 것은 운수이며, 지덕에 관련시킬 것이 아니다. 周, 진, 漢나라가 서로 계속해서 한 곳[長安]에 수도를 정한 것을 보면, 비록 개성이라도 해가 없을 것이다. 무악땅은 명당이 좁고 ... 水口가 關鎖[앞이 산으로들러 싸임]되지 않았다. 吉地라면 어찌 옛 사람이 쓰지 않았겠는가?¹²⁾

유한우의 무악 반대 후 유력자 정도전, 성석린, 정충 등조차 무악 명당의

11)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戊寅條.

12)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己卯條.

협소성을 들어 그 부적성을 주장하므로 결국 무악 땅은 포기되고 말았다.

3) 北岳山 南地의 최종선택 : 地師 尹莘連과 最高位重臣 趙浚 등의 추천

태조는 무악 땅조차 부적격으로 판정난 후, 그 자신이 새 수도 제1 후보지로 일찌감치 언급한 바 있던 한양을 염두에 두고 그 곳의 南京 舊宮地, 그러니까 북악산(백악) 남쪽 현 경복궁 북문인 神武門 밖 일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그는 남경 구궁지 터에 친히 임하여 그 일대의 수도 터 적합여부를 유력한 地師(풍수가) 윤신달과 王師인 無學大師(自超)에게 물었는데, 그 때의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신달(지사) : “우리나라 안에서는 송경이 제일 좋고 이 곳(현 경복궁 신무문 밖)은 다음으로 좋은 곳입니다. 유감인 것은 乾方(北西方)이 낮고 水泉이 고갈한 것입니다.”

태조 : [기뻐하면서] “송경인들 어찌 부족한 것이 없겠는가? 이 곳의 지세를 보니 王都가 될 만하다. 더우기 漕運이 통하고 道里가 균등하여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다.”

자초(왕사 무학) : “이 곳은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탄하여 성을 쌓아 수도를 정할만하다고 생각되나 衆意를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중신들 : “반드시 수도를 옮길 바에는 이곳(남경 구궁지 터)이 좋습니다.”¹³⁾

위의 문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양의 남경 구궁지에 대한 전폭적 찬성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그 구궁지를 수도 터로 잡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왕은 송경으로 귀경하는 길에 楊元植이 추

13)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庚辰條.

천한 경기도 적성의 廣實院 계족산 南地와 임진강 근처의 都羅山 터를 답사해 보았다. 남경 구궁지보다 더 나은 터가 있다면 그런 터를 수도 터로 정해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본인의 내심이야 어떻든 간에 중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아직도 수도 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고위 중신들인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金士衡이 한양을 추천하는 아래와 같은 말을 왕에게 개진하였다. 그 개진이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셈이 되었다.

첫째, 전하께서 큰 덕과 신성한 공으로 天命을 받아 하나의 나라를 차지하고 제도를 변경하여 만세의 정통을 세웠으니, 응당 수도를 정함으로써 [새로 정함으로써] 만세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둘째, 한양은 表裏山河의 형세가 뛰어난 곳으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사방으로의 道里가 균등하고 배와 수레의 교통이 좋다.

세째, 그러니 이 곳[한양]에 영구히 수도를 정하는 일이 진실로 하늘과 백성의 뜻에 합하는 일이다.¹⁴⁾

위와 같은 추천의 말을 들은 왕은 그 자신 당초부터 한양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터라, 두 정승의 의견을 결단성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 태조 3년(1394) 8월 24일(음력)에 한양을 수도로 결정하였다. 이성계가 易姓革命으로 왕위에 오른 지 2년 1개월 후에 드디어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란-결정 과정을 거쳐 한양의 현 경복궁 터 및 그 앞 일대가 조선의 새 수도 터로 확정되었거니와, 그 결정과정 중에서 독자들은 아래와 같은 유념해 둘 만한 점들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역성혁명으로 인한 수도이전의 불가피성이 <하나의 기정사실>로 굳어진 위에 그 적격지 선정작업이 전개되었다는 점.

둘째, 신 수도지 선정과정에서 여러 후보지의 풍수지리상의 적절성(吉地性)과 전국에 대한 중앙적 위치성 및 접근성 여부를 둘러싼 견해 차이들만 크게 일어났을 뿐, 지역들간의 수도유치 경쟁이나 그 경쟁 관련 논쟁이나 절충(compromise) 과정은 없었다는 점.

14)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辛卯條.

셋째, 수도유치 운동 전개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당국의 정치적 조치상의 곤란을 조선 조정은 겪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 정치적 절충과정이나 정치적 조치상의 곤란과 같은 크나큰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비교적 쉽게 한양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그 이유는 필자가 보기에는 당시의 정치체제가 군왕 중심의 철저한 관료정치체제였다는 데에 찾을 수 있다.

그 같은 군주 관료 체제하에서는 在野 知識人들이 설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수도선정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또한 당시 수도라고 하는 <政治都市>가 철저한 관료도시인 데다가 근대 시민사회적인 중심지가 되지를 못하여 주위 지방과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러한 수도를 자기지방에 유치해 보았자 별 이익을 얻으리라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간의 수도유치 경쟁도 없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지방의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벌이는 <중립지 수도> 선정이나 <절충지 수도> 선정과 같은 정치적 절충 (political compromise)을 통해 행하는 수도 선정도 필요치 않았다고 해석된다.

그 외에 조선국민의 민족구성이 單一的(unitary)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만약 조선국민이 2~3개의 거의 대등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벨기에나 유고슬라비아 등 처럼) 수도유치 경쟁은 어떤 형태로든 일어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도 새 수도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형편이 그렇게 돌아갔다면 한양 아닌 곳이 수도로 되거나, 종전대로 송경이 수도로 계속 남아있었을 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당시의 국가적 또는 국내적 형편에 힘입어 군왕이 地師 및 고위 중신들에 의해 추천된 각 후보지의 적절성을 신하들과 논하고, 왕의 친답을 통해서 그 중 하나를 결정하는 식의 비교적 쉬운 수도선정 과정을 밟아 조선의 수도가 정해지게 되었다.

(3) 漢陽定都의 政治地理的 理由

수도를 선정(또는 이전)하는 데에 작용하게 되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이 그 중 중요한 요인들이다.

- 첫째, 대립적인 지역들간에 不和를 줄일려면 그 대립지역들간에 정치적인 어떤 절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들 지역사이의 중간지점이나 제3의 장소에 수도를 정한다. 이런 경우의 작용요인을 정치적 절충 요인이라고 한다.
- 둘째, 국민구성상 소수민족 분포지보다는 다수민족 분포지에다 수도를 둔다. 이는 다수민족 요인이 작용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셋째, 전국에 대한 통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중앙에 둔다. 이는 중앙적 위치 요인의 작용 예에 해당한다.
- 넷째, 외국으로부터 生氣(vitality)를 받아들이거나 有用情報의 확보를 원활화하기 위해서 그 외국이 있는 쪽으로 향해 수도를 옮긴다. 이때는 연결(link)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 다섯째, 오랜 국민-민족적인 정통성의 재확보를 위해서 역사 오랜 前 수도로의 이전 또는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역사적 踏襲(historical imitation) 요인이 작용한 예이다.
- 여섯째, 기존의 수도에서는 舊질서 등이나 慣性 때문에 신 정치를 펴기 어려워 타처로 수도를 옮긴다. 이 경우는 정치적 (협회의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 일곱째, 그리고 수도 터(site) 자체가 수도 시설들을 설치하여 전국통치에 쓰기에는 좋지 못해서 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이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¹⁵⁾
- 이상의 요인들 중 조선의 한양정도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정치적 요인의 작용 : 轉向에의 회구

모든 수도 이전은 그것이 민족 문제와 관련되어 있건, 경제적 비효율성과 관련있건, 또는 통치상의 위치불합리성과 관련있건 간에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 사건(행사)이므로 당연히 그 <정치적> 이유나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삼스레 따로 <정치적 요인>의 작용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을

15) 任德淳, 1989, 政治地理學原理, 法文社, pp. 385-388.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치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식으로 넓게 보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좁혀 협의로, 즉 구체적인 정치수행상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고려되는 정치적 요인을 말한다.

그러면 이성계 장군의 집권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요인을 이해해 가기로 하자. 고려말(1367)에 고려에 영향을 크게 미쳐왔던 대륙의 인접국 元이 明으로 교체되었다. 원 명 교체 직전에는 당시 고려의 2대 실력자 최영과 이성계 사이에 대내외 정책 수립을 놓고 자주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명의 고려에 대한 태도가 硬化되면서 그로 인해 생긴 對明 긴장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양자 간의 견해차이가 첨예화되었다.

고려 조정이 공민왕 중기부터 對明 通交關係를 유지해 오다가 禡王 초기에 李仁任 일파 주도로 일시 親元政策으로 돌아서자, 그 일이 명의 신경을 자극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고려 조정에 명이 무리할 정도의 세공을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게끔 되었다.

그러던 중 우왕 14년(1388)에는 명이 鐵嶺(금강산 북서쪽 소재) 이북 땅을 전에 元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그 요구는 당연히 고려 君臣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였고, 급기야는 반환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최영 일파와 이성계 일파간에 의견 대립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최영파 사람들은 만주의 요동지방을 공격함으로써 對明 실력행사를 전개하고자 하였고, 이성계파 사람들은 그 공격을 반대했다. 고려의 전쟁수행능력의 결핍, 전쟁시기의 부적절, 전쟁효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 현실적인 부정적 판단에 근거해서 반대했던 것이다.¹⁶⁾

그러나 결국 최고사령관(팔도도통사) 최영, 좌군지휘관(좌군도통사) 曹敏修, 그리고 우군지휘관(우군도통사) 이성계가 對明出戰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그들 중 대명 공격에 반대해 오던 이성계 장군이 압록강 중류의 威化島까지 갔다가 거기서 回軍(1388)하여 대립관계에 있던 최영 장군 일파를 제거해 버렸다.

그리하여 이성계가 고려 종말기의 실권자로 등장, 나중에는 그와 그 추종자들의 의도대로 실권없고 무력한 공양왕이 옹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

16) 韓永愚, 1983, 朝鮮前期 社會經濟 研究, 乙酉文化社, pp. 30-31.

서 同王 2년(1390)에는 이성계 장군이 侍中(수상)으로 승진함으로써 명실공히 고려 종말기의 제1의 실력자가 되었다.

한편 고려 후기 이래 世臣貴族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여 私有地를 확대함으로써 생기기 시작한 토지제도의 문란은 당시 커다란 국가 - 정치적 문제였는 바, 그 점을 주시해 온 이성계 중심의 신흥권력자들이 그 피해의 근절을 부르짖고 權門勢家の 사유지들을 환수하기에 이르렀다.

그 환수는 구신들에게는 경제기반이 무너져 그에 기초한 정치적 실력까지도 상실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반면 국민들에게는 귀족들의 부정을 제거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와주는 쾌거로 인식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지개혁, 즉 私田改革은 지극히 정치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기존의 세신귀족들은 자연 정치 - 경제적으로 불만이 커졌고, 반면 이성계파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었다.

게다가 몰락해가는 고려 왕조에 암울과 혼란을 더해준 것은 공민왕 때 이래 전국 해안지대에 걸쳐 일어난 왜구의 준동이었는데, 그에 대항할 해군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고려조정은 당연히 곤경에 처했고, 君民은 불안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실력자 이성계가 국왕이 되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 절차만 남겨둔 꼴이었다.

드디어 공양왕 4년인 1392년 7월 17일(음력)에 그가 왕으로 추대되어 등극하니 고려의 왕통은 475년간의 王氏로부터 他姓인 李氏에게로 옮겨져 소위 易姓革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나서 그 등극 1년후에는 국명도 바뀌어 “朝鮮”으로 되었다.¹⁷⁾

易姓의 新王朝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당시의 군주정치 체제하에서는 형식상으로나 실제상 엄청난 변화였다. 실로 <혁명>이었던 것이다. 그 역성혁명이 비록 중국식의 天命思想, 즉 왕조가 天意를 잃으면 천명에 의해서 교체되어야 한다는 사상에 의해서 합리화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본질은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정권교체였으므로 그 政變에 대해서 기존의 守舊的 귀족들은 당연히 비판적이고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강하게 지켰다.

이유야 여하튼간에 이성계가 역성혁명으로 왕위에 오른 일은, 그것이 비록 지지자 및 민심의 뒷받침과 형식상 평화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7) 太祖實錄, 卷第一, 太祖 1年 7月 丙申條.

그에게는 심란하고 향후 정치수행에 있어서도 불편을 크게 겪게 만들만한 所因이었다.

그 위에 영향력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退官 忠臣들이 거의 모두 開京(개성)에 남아 있고, 거기다가 보수적인 대다수의 士族들도 전왕조를 그리워하고 있는데다가 상당수의 개경 주민들도 前朝 충신들에 대해서 동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터에 <왕씨 고려>의 뿌리가 깊게 박힌 개경에서 계속 정치를 해간다는 것은 불안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비능률을 초래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심란, 불편, 비능률 등으로부터 해방되어야겠다는 태조 이성계의 의도와 그의 의도를 지지하는 정승들의 말은 아래와 같은 실록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태조 : “宰相들이 송경에 오래 살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수도를 옮기는 일이 어찌 그들의 본 뜻이겠는가? [태조 자신의 의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옛날부터 역성혁명의 人君은 반드시 수도를 옮겼다.”

두 정승 (조준과 김사형) : “전하께서는 큰 덕과 신성한 공으로 천명을 받아 한나라를 차지하시고 제도를 변경하여 만세에 정통을 세우셨으니 마땅히 수도를 정하심으로써[새로 정하심으로써] 만세의 기초를 세우셔야 합니다. 아곳[한양 남경 구궁지]에 영구히 수도를 정하는 일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¹⁸⁾

역성혁명의 인군은 수도를 옮겼다고 한 말은 前朝 고려의 태조 왕건이 철원에서 개경으로 옮겼고, 명이 前朝 元の 수도 燕京(北京)을 버리고 金陵(南京)으로 옮긴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정변이나 혁명발발과 관련해서 수도를 옮긴 일은 그 외에도 중화민국이 북경으로부터 남경으로,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이 페테르부르크(현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모스크바로, 터키가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로

18) 太祖實錄, 卷第三, 太祖 2年 2月 丙子條; 卷第六, 太祖 3年 8月 辛卯條.

부터 앙카라로 옮긴 일 등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의 혁명관련 천도사례까지도 잘 알고 있는 정치가 이성계는 舊 체제로의 지향성도 없앨 수 있고 새로운 터로 정치마당을 옮김으로써 송경 소재 舊 권문세가들의 기존 기반도 신속히 무너뜨릴 수 있으며, 그리하여 군민이 함께 심기일전한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를 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즉시 地德마저도 쇠퇴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린 개경을 속히 버리고 떠나는 일, 즉 천도를 최우선적으로 바랐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개경 대신 풍수지리상 길지라고 전해져왔고 神秘主義 지리사상인 도참신앙 면에서도 吉地라고 소문나 있는 한양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한양관계의 미신적 내지 신비주의적인 지리사상으로는, 개경은 地力이나 地德이 쇠약해졌으므로 길지인 한양(또는 삼각산 남지)에다 수도를 정해 옮기면 四海 곧 온 세상이 來朝(하례와 조공을 바침)하고 국가는 태평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설이 고려 말기 군민사이에 이미 널리 퍼져있었던 터였다.¹⁹⁾

특히 김위제가 道說記, 道說踏山歌, 神誌秘詞 등을 이용해서 신비주의 지리사상을 퍼뜨린 후 위와 같은 사상이나 설은 더욱 널리 퍼졌다.

태조에게는 어차피 기존 수도를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겠는데, 바로 그 기존 수도 개경은 이미 지력도 쇠퇴했다고 소문이 널리 나 버렸으니 차제에 <새로운> 정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이전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컸던 한양을 맨 먼저 개경의 <정치적 대체물>로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결국 앞의 정도결정 과정에서 살펴 본 바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한양이 새 왕조 조선의 수도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치적 이유(요인)를 감안해서 당시 수도 한성(한양이 수도로 된 후 새 이름)의 성격을 규정해보면, 그것은 明의 南京으로의 이전, 소련의 모스크바로의 이전, 터키의 앙카라로의 이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轉向의 수도(introduced capital)²⁰⁾였다. 즉 새로운 정치적 의지와 혁신을 기존 수

19) 應制詩註(權擘, 1421), 新京地理條.; 任德淳, 1985, 전계 박사논문, p. 45.

도로부터 새로운 수도로 옮겨가서 거기서 전향적으로 실현해 보려는 뜻이 담긴 수도로 출발한 것이었다.

2) 지리적 요인의 작용 : 風水의 사이트와 對全國의 시츄에이션

수도를 포함한 諸 도시의 발생-발전-성장을 지리적 요인(이유)과 관련하여 설명해 가려면 그 발생당시 장소의 상황들, 그 중에도 특히 자체적 사이트(site)와 對全國의 시츄에이션(situation)을 각각 검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정도 당시 한양의 사이트와 시츄에이션을 살펴보고 나서 이들 요인과 관련해서 정도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① 定都 당시 漢陽의 사이트 내부구조

사이트란 하나의 취락이 발생하는 터 자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상대적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절대적 관점에서 본 것이고, 또한 국지적으로 본 것이다.²¹⁾

각 사이트는 크던 작던 간에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내부적 구조 내지 짜임새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 내부구조를 사이트 내부구조라고 말한다. 사이트 내부구조의 상태는 수도의 입지나 성장 등의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시된다.

한양천도설이 나올 당시, 그러니까 고려말-조선초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풍수설이 크게 영향을 끼치던 때였다. 그러므로 당시 한양 사이트 내부구조가 수도(국도) 풍수론상 합당한 구조였는가 여부는 한양정도론을 펴는데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필자는 관련 고문헌 및 고지도들을 이용, 우선 그림 2-2와 같이 당시 한양의 사이트 내부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그 내부구조를 알기 쉽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양의 북쪽에는 三角山(華山)이 높게 자리잡고, 남쪽에는 한강이 흐른다. 삼각산 남쪽에 白岳(북악산)이 자리잡고 백악의 좌측(동쪽)에

20) H. J. De Blij, 1967. *Systematic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John Wiley, pp. 410-411.; A. L. Sanguin, 1978. "Une Capitale pour L'Europe?": *Essai Préfectif en Géographie Politique*, *L'espace Géographique*, No. 4, pp. 285-287.; 임덕순, 1994, 600년 수도 서울, 지식산업사, pp. 189, 198.

21) D. S. Rugg, 1972. *Spatial Foundations of Urbanism*, Dubuque: WM. C. Brown, p. 85.

는 응봉과 낙산이 줄지어 있으며, 우측(서쪽)으로는 인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백악의 남쪽이 되며 동시에 한강의 북쪽이 되는 곳에 목멱산(남산)이 자리잡고 있다. 백악과 목멱산 사이에는 넓은 땅(넓은 명당)이 존재한다.

둘째, 백악의 좌 우 양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중앙의 평지에서 합류하여 東流(개천: 청계천)하다가 뚝섬 서쪽에서 한강으로 흘러 빠진다.

셋째, 한강은 그 상류의 북한강과 한강(소위 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양평에서 합하여 西進하다가 삼각산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을 뚝섬 서쪽에서 받아 한양 남쪽을 거쳐 西流한다.²²⁾

위와 같은 양상의 사이트 내부구조에 입각해서 당시의 한양천도 주장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한양의 풍수지리상의 장점이라고 제시하였다.

첫째, 한양은 중앙이 평탄하고 사방이 높다.

둘째, 혈의 전방 뜰인 명당이 넓다.

셋째, 水口가 環抱된다. 즉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바깥 쪽에서 볼 때 산으로 가려진다.

넷째, 後山(玄武, 主山)인 백악이 적절히 높다.

다섯째, 四山, 즉 청룡(좌), 백호(우), 주작(남), 현무(북)가 한양을 둘러싸서 좋다.

여섯째, 산맥의 방향과 하천(즉 한강)의 방향이 逆(엇갈림)의 관계라 좋다.²³⁾

위와 같은 형세들은 모두 수도풍수론에서 중시하는 明山吉地 형상을 이루는 데 아주 큰 몫을 하는 것들이다.²⁴⁾

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 漢城府形勝條; 大東輿地圖, 京兆五部 部分.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一, 京都上序條; 卷之三, 漢城府形勝條; 東國輿地備攷(著者未詳, 朝鮮 高宗時), 卷之一, 京都序條, 國都條; 擇里志(李重煥, 1751), 八道總論, 京畿條;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庚辰條, 辛卯條; 任德淳, 1985, 전계 박사논문, p. 47.

24) 辛侁柱, 1982, 風水地理 明堂學講論(上), 한국학교명감편찬위원회, pp. 12, 214-239.;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pp. 233-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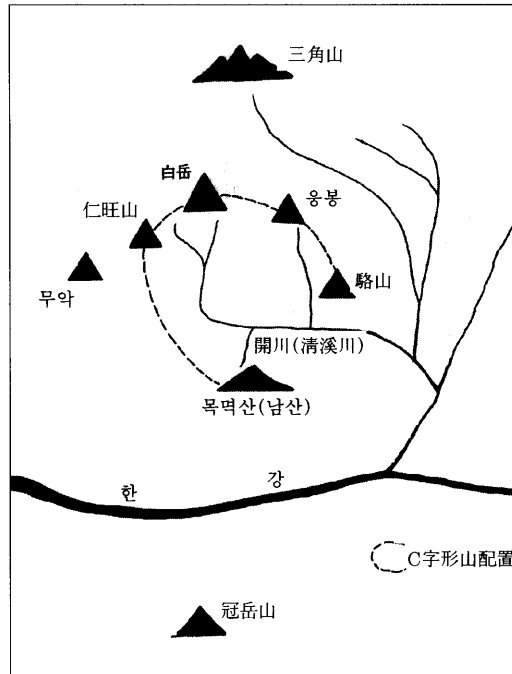


그림 2-2 漢陽 定都 당시 서울의 사이트 내부구조(산수배치)

자료 : 大東輿地圖, 東國輿地備考, 太祖實錄 등

그러한 명산길지가 되려면 그림 2-3이 보여주듯이 主山, 中祖山 또는 祖宗山, 朝山, 靑龍, 白虎, 案山, 內水, 外水, 山水의 逆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 한양의 경우 북쪽의 백악은 주산 겸 현무(북산)이고, 좌측의 낙산은 청룡(동산)이며 우측의 인왕산은 백호(西山)이고, 백악을 마주보고 있는 목멩산(남산)은 안산 겸 주작(남산)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강 너머 멀리 자리잡은 관악산은 조산(앞에 멀리 있는 산)이요, 그 반대방향에 있으면서 백악이 뺀어 나온 삼각산(북한산)은 중조산, 즉 조종산(太祖山)에서 뺀어나온 중간급의 조상산에 해당된다.²⁵⁾

한편 명당을 포함한 중앙저지에는 내수가 주산인 백악에서 흘러 나오고, 그 물은 밖으로 흘러 외수인 한강에 합쳐져 산수의 逆을 이루면서 서류하여 좋다는 것이다.

25) 임덕순, 1994, 전계서,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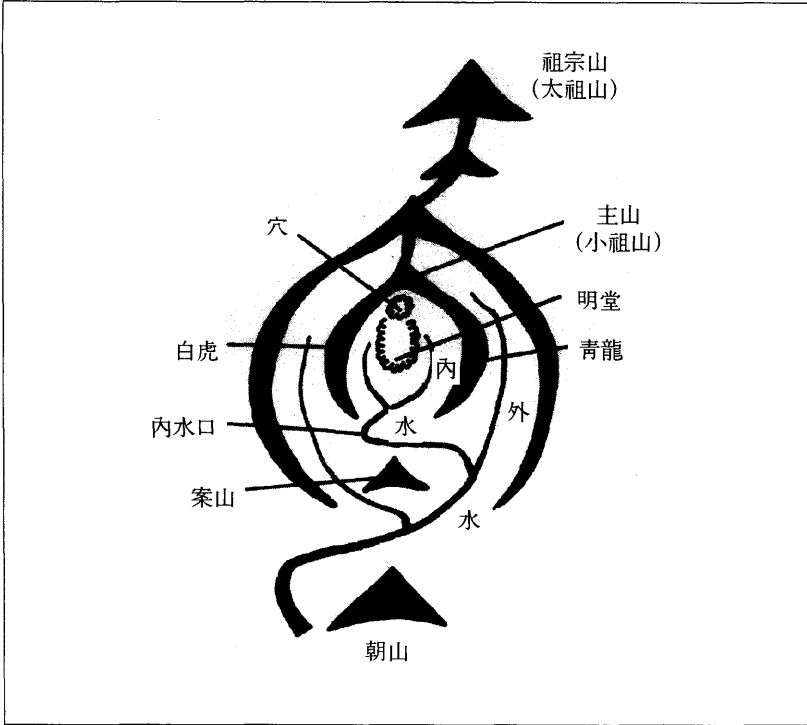


그림 2-3 수도 풍수지리설상의 명산 길지형상 (신광주-임덕순)

이상의 산수배치를 명산길지 기본형상과 알기쉽게 대비해보면 표 2-1과 같다.

이같은 길지형상-漢陽山水 관계의 意識은 태조실록이나 택리지 등 고문헌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몇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실록 중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송경이 제일 좋고 이곳[백악 남지]이 다음으로 좋은 곳



표 2-1. 한양산수의 명산길지 형상과의 비교

명산길지 형상	漢陽의 산수배치
중조산	삼각산 (북한산)
주산 (현무, 북산)	백악 (북악산)
청룡 (동산)	낙산
백호 (서산)	인왕산
안산 (주작, 남산)	목멱산 (남산)
조산	관악산
내수	개천(청계천) 및 이리로 흘러드는 하천들
명당	궁궐터 및 그 앞뜰
외수	한강

입니다. 유감된 것은 것은 乾方(북서방)이 낮고 水泉이 고갈한 것 뿐입니다.” (지사 윤신달).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 만하다.”(태조). “이곳은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탄하여 성을 쌓아 수도를 정할 만하다고 생각되나 衆意에 따라서 결정하십시오.”(왕사 무학, 즉 자초)²⁶⁾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에서]

“화산[삼각산]은 높이 솟고 한강수는 철철 흐르니 하늘이 만든 땅 평탄하게 펼쳐져 넓도다. … 흐르고 흐르는 한강수 나라 수도를 들렀는데 風氣[地氣]가 모인 곳에 둘러싸여 완전하도다. … 천만년에 길이 三韓 땅을 鎮護하리.”(권근)²⁷⁾

[택리지 중에서]

“또 우뚝 솟아 삼각산 백운대로 되었다.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백악산이 되었다. 形家[풍수가]는 백악산이 ‘하늘을 꿰뚫는 木星[산봉우리가 등그스럼한 것]의 형국이며 궁성의 주산’ 이라고 말한다. 동 남 북쪽은 모두 큰 강이 들렀고 서쪽으로는 바다의 潮水와 통한다. 여러 곳 물이 모두 모이는 그 사이에

26)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庚辰條.

2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三, 漢城府形勝條.

백악산이 서리어 얽혀서 온 나라의 정기가 모인곳이라 일컫는다.”(이중환)²⁸⁾

위와 같이 의식된 바 있는 당시 한양의 내부구조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보아도 훌륭한 것이었지만 수도방위면으로 보아도 대단히 크게 가치있는 구조요 형세였다.

조선 조정은 백악산, 인왕산, 목멱산, 낙산의 사산을 연결하는 內環(inner ring)에 도성(수도 성곽)을 쌓았고, 그들 산 사이에 각각 하나씩 모두 4개의 도성문(4대문)을 세웠다.(後衛)

한편 한양의 사이트를 점차원에서 보면 그림 2-4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한강의 河曲部에 자리잡은 강변 사이트였다. 그러므로 한양은 양방 수로에 의존해서 높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지닐 수 있는 사이트였다고도 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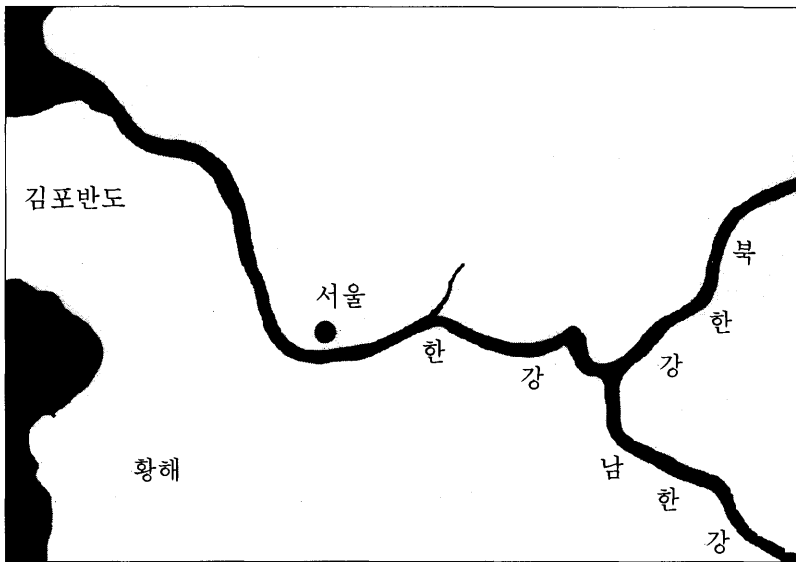


그림 2-4 漢陽 定都 당시 서울의 江邊 사이트(點次元)

자료 : 朝鮮八道輿地全圖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서 논의될 것이다.

28) 擇里志, 八道總論, 京畿條.

② 定都 당시 한양의 시츄에이션

시츄에이션(situation)이란 타지역들과의 관계 내지 교통면에서 바라본 어느 한 장소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장소의 성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장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여부를 살피는데는 당해 장소가 지닌 교통상의 결절성(nodality) 및 대외연결성(external connection)에 주목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²⁹⁾

현대적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시대에는 주로 하천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적 결절점(natural nodal-point)에서 높은 대외연결성이나 결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곳들은 자연 타지점들과의 교통이 편리한 곳들이 되어 자체지역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곽지역들에 까지도 발전이나 편리를 안겨주는 구실을 하였다.

그러면 높은 결절성을 지닌 시츄에이션과 일국의 수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도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전국토 및 전국민에 대한 통치를 위해서 높은 결절성이나 대외연결성을 지닌 시츄에이션의 터에 자리잡아야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터라야 통치에 필요한 교통거리가 짧아져 통치의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은 시츄에이션의 수도가 이상적(ideal)인 수도이다.³⁰⁾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필자는 정도 당시 한양의 시츄에이션 상태를 중요시하여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양은 한강 덕분에 조운이 편리하다. 그리고 한강 수운으로 경상 전라 충청 경기 강원 황해도 지방과 통한다. 거의 전국의 화물을 수송하는 배는 모두 용산에 정박하므로 한양은 수운상의 요지이다.

둘째, 한양으로부터 전국 각지로의 거리가 균등하므로 한양은 곧 국토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³¹⁾

위와 같은 시츄에이션 상태와 함께 태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택리지 등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잘 음미해 보면 정도 당시 한양의 시츄에이

29) D.S. Rugg, 1972, 전게서, p. 81.

30) J. Gottmann, 1977, "The Role of Capital Cities," *Ekistics*, No. 264, pp. 240-243.; C. E. Browning, 1970, "The State Capitals: Meaningful Geographic Analysis vs. Memorization," *Journal of Geography*, Vol. 69, No.1, pp. 40-41.; R. Muir, 1975, *Modern Political Geography*, London: Macmillan, p. 65.

31)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辛卯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一, 京上都條.; 東國輿地備考, 卷之一, 京都序條.; 漢京識略(柳本藝, 1830), 卷之二, 山川漢江條.

선이 국가통치상 얼마나 유리한 것이었는지를 쉽게 잘 알 수 있다.

“수도는 마땅히 중앙에 있어야 될 것인데, 계룡산은 지대가 남방에 치우쳐 있어서 동 서 북 삼면과 멀리 떨어져 있다.” (태조실록 : 河嶽의 말)³²⁾

“이곳[무악 남지]은 이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漕運交通은 좋지만 …” (태조실록 : 정도전의 말)³³⁾

“한양은 더우기 조운에 통하고 도리가 균등하여 백성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태조실록 : 태조 이성계의 말)³⁴⁾

“사방으로의 道里가 균등하고 배와 수래교통이 좋으니 이곳[한양]에 수도를 정하는 일이…” (태조실록 : 좌 우 양정승 조준과 김사형의 말)³⁵⁾

“삼남[전라 경상 충청도]의 세조를 실은 배가 모두 손돌목[강화도 바로 남동쪽 물길]을 지나서 한양에 올라오는 까닭에 ” (택리지 : 이중환의 말)³⁶⁾

“한강은 서울 남쪽에 이르러 한강도가 되고 그 서쪽에서 노량진[노들나루]이 되며, 또한 용산강이 되었는데 경상 충청 강원 경기도의 상류로부터 배에 실려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쳐 서울에 다다른다.” (세종실록지리지)³⁷⁾

이상의 한양 시츄에이션에 관련된 진술내용을 지도화한 것(계룡산 제외)이 그림 2-5이다. 그림 2-5를 보면 당시 한양은 하천교통상 예성강-북한강 선의 중간에 있고 또한 예성강-한강(남한강) 선의 중간에도 있으며, 해로와 관련해서는 남해안과 서해안으로부터 한강하구에 닿아 거기서 계속 한강을 소급하여 한양에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조선 초기 고위 정책 입안자들의 한강수로에 대한 높은 접근성 인식은, 수

32) 太祖實錄, 卷第四, 太祖 3年 12月 壬午條.

33)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己卯條.

34)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庚辰條.

35)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辛卯條.

36) 擇里志, 八道總論, 京畿條.

37) 世宗實錄, 卷第一四八, 地理志, 端宗 2年, 京畿都觀察條.

로외에는 다른 대량 운송로나 운송수단의 발달이 별로 없었고 또한 특히 국가의 경제 - 재정적 기반이 되는 각지 산물(稅租物)의 운송을 사실상 주로 수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定都 당시로서는, 한양이 수도 適地로 선택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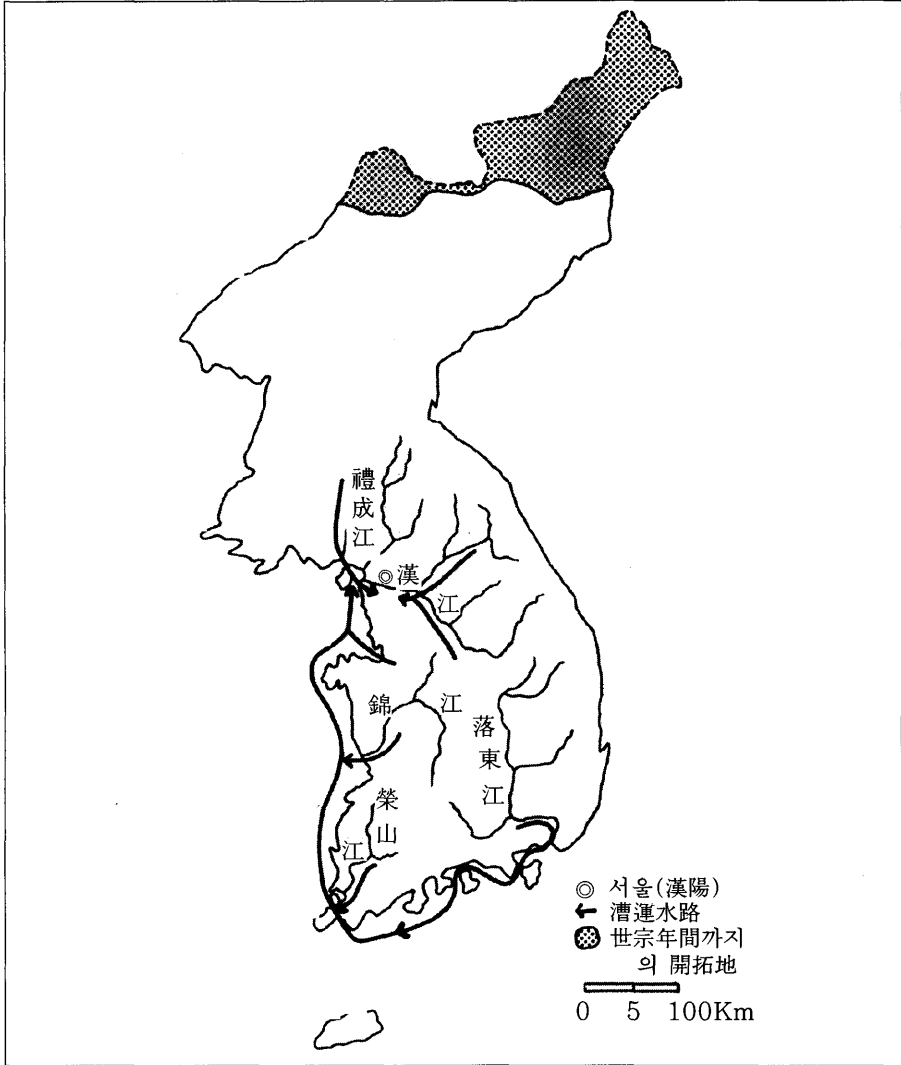


그림 2-5. 漢陽 定都 당시 서울의 시추에이션과 朝鮮의 漕運水路
 자료 : 漢京識略, 擇里志, 新增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게다가 한양의 중앙적 위치성도 한양이 수도적지로 여겨지는 데 대단히 큰 몫을 하였다. 이 점은 앞의 인용문들 중 하륜, 태조, 조준 등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수도가 중앙에 입지함으로써 중앙-주변 거리가 최소화되고, 즉 最少總和距離(minimum aggregate distance)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통치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인데³⁸⁾, 이 점을 조선초기의 위정자도 주목 하였던 것이다.

고도의 접근성을 지닌 중앙적 위치의 수도가 政治理念 및 통치의 중심지로써 전 영토의 보전 관리나 전국민에 대한 통치 내지 정치적 사회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편심적 위치(excentric location)의 수도보다 시간상으로나 비용상 월등하게 효율적이라는 점은 이미 잘 확인된 바 있다.³⁹⁾

이상과 같이 필자는 정도 당시 한양의 지리적 특성들, 그 중에도 특히 실재상 및 인식상의 사이트와 시츄에이션이 한양으로 하여금 새 조선의 수도가 되도록 하는 데 대단히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한양의 사이트 내부구조, 즉 한양 터의 산수배치가 풍수설에 비추어보아 잘 짜여져 있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한양이 수도가 되었다고 여기기 쉬우나 (世間에 이런 식의 논조가 지배적이다), 실은 그의 시츄에이션이 사이트 내부구조와 대등한 무게로 한양 定都에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옳다.

결국 한양은 지리적으로 볼 때, 그의 사이트 내부구조가 <산수의 잘 만남> 이라고 하는 풍수지리적 길지 조건들을 갖추었고, 그의 주위 산지는 방어진형상 수도보호에 유효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시츄에이션상 그의 위치가 전국 통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선초에 새 국가 조선의 수도로 선정되었다.

이제 이상과 같은 史實 및 논의를 근거로 해서 漢城(한양의 수도 이후 개칭)의 수도성격을 판정해보기로 한다.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군주국가며 중앙집권적인 單一體制(unitary system)의 국가였다. 따라서 수도 한성의 對全國 통어력은 대단히 강력하였다. 그러므로 한성은 統御的 수도(head capital)⁴⁰⁾의 성격을 띄고 새 조선의 수도로 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38) 任德淳, 1989, 전게서, pp. 380, 387-392.; O. Adejuyigbe, 1972, "Factors in Loca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s," *The Nigerian Geographical Journal*, Vol. 15, No. 2, p. 127.

39) J. C. Nwafor, 1980, "The Relocation of Nigeria's Federal Capital: A Device for Greater Territorial Integration and National Unity," *GeoJournal*, Vol. 4, No. 4, p. 362.; 任德淳, 1989, 전게서, pp. 368-370, 377.

40) 任德淳, 1989, 상게서, p. 381.

3. 朝鮮首都의 象徵性

여기서는 보통 도시가 아닌 정치 도시로서의 수도 한성, 그것도 다름아닌 <정치적 의도>로 옮겨 온 이른바 轉向的 首都인 한성에 어떤 형태로든 상징성이 부여되었으리라고 보고 (적어도 정치-문화지리학적으로 고려하면 그러한 게 틀림없다), 조선 새 수도의 상징적 측면들을 탐색 논의코자 한다.

(1) 首都, 象徵, 象徵化

상징적 측면에서 볼 때 首都란 과연 무엇인가? 수도와 상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도의 一次的이고도 근본적인 機能은 전국에 대한 통치이다. 이러한 기능 외에 해당 국가의 政治哲學的 및 理念的 核心地로서, 또한 國家的 象徵體制 (national iconography)의 중심지 구실을 함으로써 국민의 감정도 지배 주도해 가는 곳이 수도이다.⁴¹⁾ 이러한 기능들이 수도를 여타의 도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점이다.

그러면 상징(symbol)이란 무엇인가? 상징은 어떤 本質이나 본질적인 理想-哲學 또는 意味를 겉으로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것, 즉 代表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한다.⁴²⁾ 본질, 본질적 이상, 의미 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줄 때 그 대표되어 보여지는 것은 어떤 標識나 景觀의 형태로 우리 앞에서 있게 된다.

상징의 첫번째 機能은 本質이나 그의 理想-哲學을 구체적 물건이나 配置를 통해서 <대신> 보여주는 일이다. 다음의 기능은 특히 首都의 상징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인데, 가령 위정자가 理念的 個性이나 自己實存性 (authenticity)이 깃든 景觀을 꾸며 그것을 통해 어떤 권위-위신이나 장중성 (grandeur, grand manner)을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독특하고 도 멋이 있다는 感情을 갖게 하여, <이 나라는 과연 文化-政治上 독립된 국가

41) 任德淳, 1982, "首都 서울의 結束機能," 志北大論文集, 第24號, p. 183.; ____, 1989, 진게서, p. 376.; ____, 1994, 600년 수도 서울, 지식산업사, p. 195.; 石成岳, 1973, "首都의 국가 統合기능에 관한 研究: 주로 政治地理學的 측면에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pp. 3-4, 12-15.

42) 任德淳, 1990, 文化地理學, 法文社, pp. 224-232, 247-250.

로구나) 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그 중에도 국내인들의 경우에는 긍지 (pride)나 士氣, 또는 국민적 正體를 심어주어 그들을 自國體制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결속을 촉진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象徵을 통해 어떤 감정적 연계 (sentimental association)를 불러 일으켜,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 유성(외국인들에게)을 느끼게 하고 국민적 결속(국내인들에게)도 다지게 하는 일이다.⁴³⁾

이처럼 감정, 의지, 애국심 등과 같은 것이 일어나도록 景觀上에 視覺적으로 무엇인가를 꾸미는 일을 外觀의 象徵化(symbolization)라고 하는데, 본 고에서는 새 수도로 천도한 조선정부가 그 수도 조성 초기에 漢城(서울)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상징화를 실천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朝鮮首都의 象徵化

한양정도의 政治的 理由-要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성계의 朝鮮>은 新王朝(dynasty)였고, 그 수도 한성은 松京(개성)과는 다른 모양으로 꾸며 對內的으로는 국민의 감정을 위엄있게 끌어당기면서 政치를 주도해가고, 對外的으로는 조선의 자기실존성과 독립국가적 권위를 개성있게 보여주어야 할 政治都市였다. 새 왕조와 새 수도에 부합하는 상징성을 漢城에 刻印하여 보여야 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최고 통치자 太祖와 그의 重臣 鄭道傳 등은 한성조성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특히 정도전은 한성 도시계획 입안, 都城의 성벽 基地 선정 등⁴⁴⁾을 통해서 조선의 통치철학인 유교 이념에 맞고 또한 朝鮮의 個性에도 어울리도록 한성을 만드는 데 힘썼다.

1) 漢城의 個性化 : 首都全體의 視角

① 「周禮」理想의 선택적 景觀化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周나라 이래의 중국의 理想的

43) 任德淳, 1982, 전계논문, p. 187.; _____, 1989, 전계서, p. 377.; _____(譯), 1974, 政治의 地理學, (W.A.D. Jackson et. al.), 一志社, p. 30.; 橫山昭市, 1988, 首都, 東京: 大明堂, pp. 11-12.; J. Gottmann, 1952, "The Political Partitioning of Our World: An Attempt at Analysis," in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edited by W. A. D. Jackson, 1964),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 83.; E. F. Bergman, 1975, *Modern Political Geography*, Dubuque: W.M. C. Brown, pp. 182-184.

44) 太祖實錄, 卷第八, 太祖 4年 閏 9月 甲戌條.

규범-제도집인 「周禮」는 역대 중국 中原 정부에 의해서 국가제도 수립이나 수도 조성 등에 典範으로 많이 쓰였다. 특히 수도조성에는 「周禮」 “考工記”의 기준이 한국과 일본에까지 정도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中國文化를 크게 수용했다는 면에서 보아 위 고공기 기준이 양국에서도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수가 있다.

「주례」에 실려 있는 首都造成案에 의하면 수도 윤곽 형상, 다시 말해서 수도 주변에 쌓은 성곽 기준의 首都形狀이 正四角形인데, 그것은 古代 中國人들의 世界觀(world view)인 天圓地方 사상 중에서 <땅은 사각형>이라는 견해를 그들의 수도조성에 반영한 것이다 (그림 2-6).

위 견해가 歷代 주요 中原國家들에 의해 全的으로나 部分的으로 원용되었으니, 가령 東周의 王城(낙양 근처), 唐의 長安(서안), 元의 大都(북경), 北魏의 洛陽 등이 그 예이다. 일본에서는 平城(나라)과 平安(교토) 조성에, 한국에서는 특히 조선의 한성(서울) 조성에 원용되었다.⁴⁵⁾

한성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되, 그 전에 먼저 정도전과 「주례」와의 관계를 일별하기로 하자. 대유학자인 정도전은 유교경학과 「주례」, 그리고 五行思想에 대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는 주례를 탐독하여 자신 저작의 제도집인 「朝鮮經國典」(태조 3년작) 저술에 주례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을 정도였다. 그 관련 내용들이 조선경국전 도처에 언급 내지 반영되어 있다.

주례에 밝은 정도전은 「주례」 “冬官 考工記下”에 기록되어 있는 수도조성 기준을 주목하였는데, 바로 그 기준을 여기에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塗九軌 左祖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⁴⁶⁾ (장인들이 국가 수도를 조영함에 있어서 윤곽은 사각형으로서 그 각변 길이는 9리요, 각 변에 3개씩의 성문을 설치한다. 국가수도 안에는 중요한 도로로 9개의 세로 길과 9개의 가로 길을 내고, 그들 각 도로는 9량의 수레가 병행할 수 있도록 9궤폭을 지니도록 만든다.)

45) 成周鐸(譯), 1993, 中國都城發達史(董鑿弘), 學研文化社, pp. 23-27, 57-59, 66-74.

46) 林尹(註譯), 1983, 周禮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p. 471 (冬官 考工記下 匠人營國條). 이 책은 林尹(대만인)이 古代 「周禮」의 韓文을 현대 韓文으로 번역하고 주석을 단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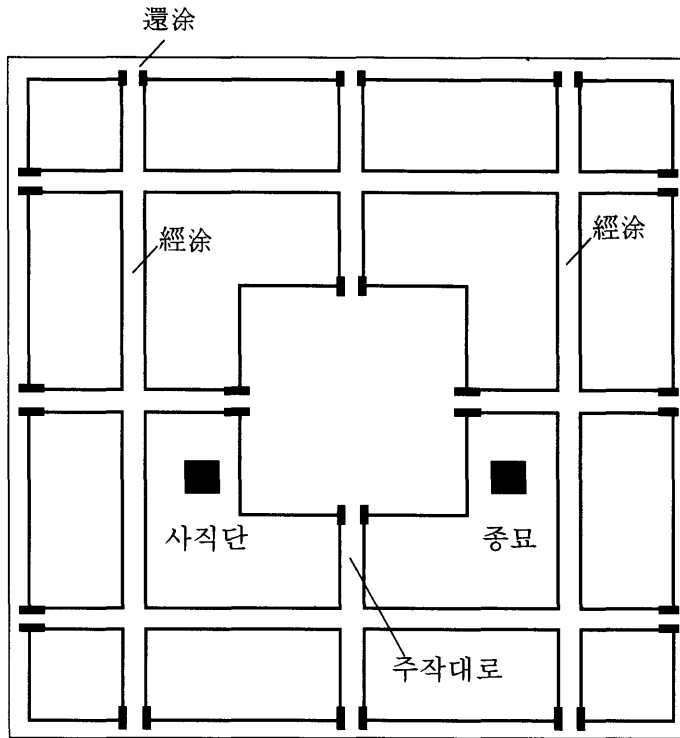


그림 2-6. 「周禮」기준에 의한 周禮的 理想形의 首都造成案 (概念圖)

* 윤곽은 정4각형, 궁성은 중앙, 좌측 종묘, 우측 사직단, 4방 각각에 3문 등
 왕궁 문밖 왕궁로 좌측에는 祖廟를 세우고 우측에는 사직단을 세운다. 왕궁앞에
 관아를 두고 뒤에는 시장을 설치한다. 시장과 관아의 구역 크기는 각각 1변이
 100묘인 사각형이다 : 필자 譯

위 기준 중 정도전(내지 조선 조정)은 〈左祖右社〉 즉, 왕궁(경복궁) 문밖 좌측에 조묘(종묘)를 세우고 우측에는 사직단을 세운다는 점을 채용하였다. 그 종묘와 사직단은 현재 각각 종로구내 종묘공원 북쪽과 사직공원내에 남아 있다 (그림 2-7). 종묘는 이성계의 조상들의 신위를 모시려고, 사직단은 국토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만든 것이니 두 시설은 모두 국가정통성의 상징들로서 중국적 전통을 도입한 것이다.⁴⁷⁾ 그 중에도 종묘(조묘)는 더욱 중

47) 任德淳, 1985, 전계 박사논문, p. 65.

요시하여 正宮 경복궁과 동시에 준공토록 하였다.⁴⁸⁾

이상에서 우리는 현재에도 가서 볼 수 있는 종묘와 사직단이 「주례」의 좌조(묘)우사 기준을 원용해서 세워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좌조우사 기준 원용 외에 주례기준을 수용한 것을 말해보면 그것은 朱雀大路 형식의 채용이다. 「주례」 “동관고공기하”에 보면 “夜考之極星 以正朝夕”⁴⁹⁾이라는 말이 있다. 밤의 북극성 위치를 참고하여 그로써 해가 뜨는 동쪽과 해가 지는 서쪽을 바로 알라는 말이다.

그림 2-8에서 알 수 있듯이 북극성(북) 위치는 남-북을 정하고 나서 동-서를 가리는 데 기준이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별이 높은 곳에 있고 불변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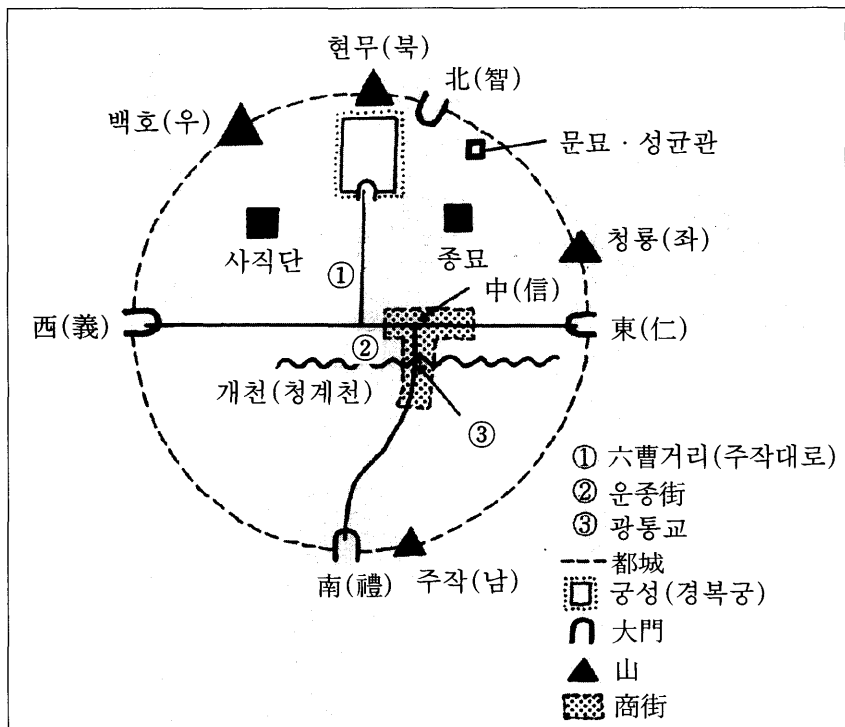


그림 2-7. 朝鮮 首都 初期의 漢城造成 (概念圖)

* 도성 윤곽은 「주례」이상형과 달리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이고, 주작대로와 좌묘우사는 구비토록 되었다.

** 궁성은 북부 중앙에 배치되었다.

48)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11月 己亥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一, 京都上 壇廟社稷壇條, 宗廟條.

49) 林尹(註譯), 1983, 전게서, p. 471 (匠人建國條).

다가 하늘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져, 그 별의 直下 장소는 세계의 중심지이거나 신성한 곳으로도 여겨진다.⁵⁰⁾ 위와 같은 경우 수도의 기본축은 자연 남-북 방향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남-북 방향의 기본축이 만들어지면 그 기본축 선 좌 우에는 軸 理論上 동과 서가 대칭적 또는 對待的으로, 즉 마주 보며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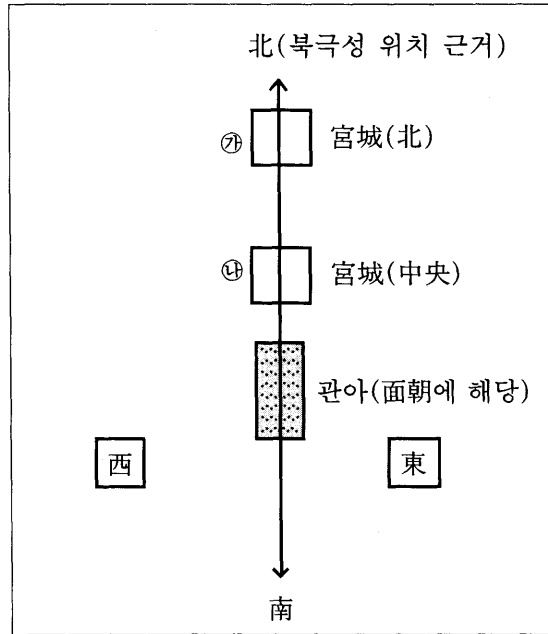


그림 2-8.國權-王權의 象徵性이 깃든 南-北 基本軸

* 기본축 좌 우에 東 西가 對待的關係를 이루며 마주보고 있다.

** ㉗, ㉘ 중 한곳에 궁성 立地함

이와 같은 식의 배치는 앞에서 든 東周王城(이 경우는 완전대칭적; 대칭적인 것과 대대적인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과 北京(大都) 외에 남경 등에도 채택되었는 바 그 배치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선을 基本軸으로 삼는다

50) 任德淳, 1990, 전거서, pp. 247-248.; 이은봉(역), 1992, 宗教形態論 (M. Eliade), 형설출판사, pp. 56, 126-127, 409.; 李東夏(역), 1983, 聖과 俗: 宗教의 本質 (M. Eliade), 학민사, pp. 35-36.

둘째, 남-북 기본축상에 왕궁을 입지시킨다.

셋째, 남-북 기본축의 일부를 朱雀大路(남북방향의 왕궁 앞 대로)로 삼는다.

넷째, 좌조(묘)우사의 배치를 취한다.

다섯째, 동·서양 시장(長安 경우)의 배치를 취한다.

여섯째, 왕궁을 중심으로 전조후시(동주왕성 경우)의 배치를 취한다.

위와 같은 배치들 중에서 조선의 한성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취했고, 여섯째에 관해서는 “前朝”만 취했다. 본란에서는 셋째인〈주작대로 형식〉의 채용론이 논의의 핵심이 되는데, 바로 그 주작대로는 남-북 연계선상에서 볼 때 남-북 기본축의 남부에 해당된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현재의 세종로 네거리 교차점(옛 황토현)에 이르는 大廣路(세종로)가 바로 한성의 주작대로로 조성된 것이다 (그림 2-7).

이상의 검토로 보아 漢城造成에서 「周禮」의 방향설정 원리⁵¹⁾인 “夜考之極星”을 따르고, 그에 맞게 남-북 기본축의 일부를 주작대로로 조성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작대로 형식 채용 외에 주례에서 또 한가지 취한 것이 수도내 도로폭 기준이다. 중국 皇道의 도로폭들을 下向式으로 채택 사용한 점이다.

수도 초기 도로제도가 정리수록된 「經國大典」⁵²⁾을 보면 한성내의 도로폭이 급에 따라 얼마나 넓어야 하는가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 大路 = 幅 56尺

* 中路 = 幅 16尺

* 小路 = 幅 11尺

이들 56척, 16척 등의 척규모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옛 기록을 보면 태종 때의 유학자 겸 증신들이 「주례」에 실려 있는 중국 도로제도(폭제도)를 읽어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⁵³⁾, 그 후 서거정, 임원준 등 「경국대전」 편찬자들도 중국 옛 수도의 도로제도(주례속의 제도)를 이상적인 것, 또는 모방해야 할 것으로 일단 인식하여 그 도로제도(폭제도)를 한성의 路制에 쓰기로 하여 同大典에 위와 같이 실었던 것이다.

51) 任德淳, 1990, 전계서, p. 249.

52) 經國大典, 卷六, 工典, 橋路條.

53) 太宗實錄, 卷第三十, 太宗 15年 8月 辛未條. “9계설 7계설이 있는데 ... 지금은 정한 제도가 없어서 ...”

그러면 그 문제의 「주례」에는 어떻게 실려있는가? 「주례」 “冬官考工記下”⁵⁴⁾를 보면 도로폭 기준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 * 經塗 (大路) = 幅 九軌
- * 環塗 (순환도이며 中路) = 幅 七軌
- * 野塗 (小路) = 幅 五軌

그런데 9궤는 수레 9량이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廣路이고, 7궤는 7량이 병행할 수 있는 도로이다. 그리고 1궤는 同書註에 의하면 8척이므로 9궤는 폭이 72척(9×8척)이요, 7궤는 56척(7×8척)이요, 5궤는 40척이 된다. 그러므로 그 도로폭들은 아래와 같이 달리 쓸 수도 있다.

- * 대로(경도) = 72척
- * 중로(환도) = 56척
- * 소로(야도) = 40척

「경국대전」에 실려있는 〈한성대로 56척〉은 바로 중국의 중로(환도) 기준을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세종실록」상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⁵⁵⁾

그런데 「주례」상의 경도는 皇道の 最廣路요, 환도는 외곽순환도로로서 諸侯國이 그들의 경도폭 즉 최광로폭으로 삼을 길이다 (그림 2-6). 야도는 중국 수도의 보통 길로서 제후국이 그들의 보통도시의 최광로폭으로 삼을 길이다.⁵⁶⁾ 조선이 불행히도 中原國 明의 조공국이어서 황도의 대로(최광로) 폭을 한성의 대로폭으로 그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한단계 낮추어, 즉 중국의 중로(환도) 폭을 우리의 대로(즉 조선의 경도) 폭으로 삼았던 것이다.⁵⁷⁾ 그리고 우리의 중로는 중국의 소로(40척)에 못미치는 16척으로 삼았으니 16척 도로는 곧 2궤의 도로로서 중국의 경우에는 명시된 바 없는 기준외의 도로였다. 그리고 소로는 한국실정을 고려하여 1궤(8척)를 조금 넘게 하였다.

결국 한성의 경우 대로만 「주례」의 대로인 경도 次下의 환도(중로)급에 맞추어 조성하였다. 나머지 도로급은 한성실정에 맞게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조선의 체면을 살리려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주례 기준을 원용해서 조성된 조선초기 한성의 대로들은 1)서대

54) 林尹(註譯), 1983, 前掲書, p. 471 (經塗九軌條).

55) 世宗實錄, 卷第三十二, 世宗 8年 4月 戊辰條 (주례 道制 및 그 수용론).

56) 林尹(註譯), 1983, 前掲書, pp. 471-476.

57) 世宗實錄, 卷第三十二, 世宗 8年 4月 戊辰條.

문(현 신문로 파출소 앞) — 동대문 거리, 2) 종로 네거리 보신각 앞 — 남대문 거리, 3) 경복궁 정문(광화문) 앞 — 황토현(현 세종로 네거리) 거리이고, 종로들은 문안 도십에서 4소문들로 뺀 길 등이었는데, 가령 현 을지로와 퇴계로, 그리고 동소문 및 서소문 등으로 뺀 길들이 그것이다.

② 五行思想 - 儒敎的 價値의 景觀化

이번에는 한성조성이 오행사상-유교적 가치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점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잘 알다시피 조선정부는 背佛崇儒 정책을 씌으로써 중국기원의 이념이요 사상인 유교를 국가이념(state-idea)으로 삼아 정치, 교육, 사회제도, 사회질서 유지 등에 크게 활용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교이념에 입각한 군주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확고히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 유교사상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근원은 음양 - 오행 사상에 있다. 「周易」에 의하면 생명(또는 우주)의 본원체인 태극이 움직여 兩儀인 陰과 陽이 생겨나고⁵⁸⁾, 음 양이 운행하면 5개의 기본물질인 木 金 火 水 土의 오행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행을 고대중국에서 인간관계 제반에 적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仁(목) 義(금) 禮(화) 智(수) 信(토)의 五德(五常)인 것이다.⁵⁹⁾

그러므로 중국 유교, 나아가 그의 기본 원리를 수용한 조선유교의 오대 덕목(가치)은 가까이는 오행사상에, 멀게는 태극 사상에 기초한 것이요, 오행사상과 유교의 5대 덕목은 한통속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확인이나 아니더라도 조선조정이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오행사상을 상당수준 크게 믿고 따랐다는 것은 몇몇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가령 오행의 생성원리에 따라 水性의 고려가 木性의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믿는다는가, 목성인 조선의 조정이 木德의 數인 8을 좋아했다든가⁶⁰⁾ 하는 것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오행-유교 관계 속에서 조선초기 국가의 여러 제도를 수립하고, 수도 한성 조성안을 짜내고 그를 실천함에서 특히 대유학자 鄭道傳의 공헌이 컸으니, 이하에서는 그 오행-유교가치 관념이 수도한성 조성에 어떻게 반영

58) 이기석(역주), 1983, 新譯周易, 서문당, pp. 251-254.

59) 鄭鍾復, 1978, 儒敎哲學思想, 형설출판사, pp. 91-92.

60) 韓永愚, 1983,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p. 37.

되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조선조정은 오행인 목 금 화 수 토와 유교오덕인 인 의 예 지 신을 都城의 대문들 및 중앙의 종루(4대문보다는 나중에)와 동네 명칭인 坊名들에 적절히 새겨넣었다. 우선 4대문과 중앙종루에 刻印한 실상을 소개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그림 2-7 참조).

표 2-2. 五行-五德-五方-4大門 및 鐘閣 對比關係⁶¹⁾

五行 五德	방향 대문 및 종각
木 仁	東方 興仁之門 (동대문)
金 義	西方 敦義門 (서대문)
火 禮	南方 崧禮門 (남대문)
水 智	北方 炤智門(숙청문; 숙정문)(북문)
土 信	中央 鐘樓 普信閣

이처럼 4대문과 보신각에 오행-오덕(유교 가치)관이 각인됨으로써 한성의 수도적 경관은 이념적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

당시의 동명인 坊名의 경우에도 유교적 가치들이 부각되었는데, 전체 52방 중에서 아래 방명들이 그에 해당된다. 그들 방명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동명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 * 彰善, 建德, 德成, 崧信, 仁昌, 觀德 坊 (이상 한성 五部중 東部 소속)
- * 好賢, 明禮, 誠明, 樂善, 貞心, 誠身, 禮成 坊 (이상 南部 소속)
- * 仁達, 積善, 餘慶, 仁智, 聚賢 坊 (이상 西部 소속)
- * 陽德, 鎮定, 順化, 義通 坊 (이상 北部 소속)
- * 貞善, 寬仁, 澄清 坊 (이상 中部 소속)⁶²⁾

이상의 방명까지 고려할 때 이념의 <景觀에의 刻印>치고는 그 정도가 보통

61) 임덕순, 1994. 전계서, p. 78.

62) 임덕순, 1994. 상계서, pp. 79-80.

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조선수도에는 오행-유교적 관념이나 이념이 깊숙히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③ 風水의 世界觀의 景觀化

이번에는 한양정도 당시 풍미했던 풍수적 견해나 사상이 수도 조성에 어떻게 작용되거나 반영되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당시 한국의 풍수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한 정도로 전통화된 吉福觀의인 土地觀이었고, 좀더 크게 보면 당시 한국인 대다수가 지닌 땅에 대한 세계관(world view)이었다. 그러한 토지관 내지 세계관이 다른 취락이 아닌, 국태민안의 主導都市인 수도에 음양으로 반영되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 당시 한성조성에 고려되고, 나아가 반영되기까지 한 풍수적인 중요한 부분들만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양은 穴의 前方 들인 明堂이 넓다.

둘째, 사산인 靑龍(낙산), 白虎(인왕산), 朱雀(목멱산; 남산), 玄武(백악; 북악산) 모두가 한양을 둘러싸서 좋다.

셋째, 主山(현무; 後山)인 백악(북악산)이 적절하게 높다.

넷째, 한양의 水口가 環抱된다. 즉 물이 흘러 나가는 곳이 바깥 쪽에서 볼 때 산으로 가려져 있어서 좋다.

다섯째, 산맥 방향과 하천(한강) 방향이 서로 <逆의 관계>를 이루어 좋다.

여섯째, 形家(풍수가)의 말로, 백악이 하늘을 꿰뚫는 木星(둥그스름한 봉우리)의 형국이며 궁성(경복궁)의 주산이다. 그리고 여러 곳의 물이 모이는 사이에 백악이 서리고 얽혀서 온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인 곳이다.

일곱째, 白岳 南地의 형세가 가히 왕도가 될 만하다.

여덟째, 흐르고 흐르는 한강수가 나라의 수도를 둘러렸고, 地氣(風氣)가 모인 곳들에 의해 둘러 싸여 완전하다.⁶³⁾

위와 같은 언급내용들처럼 한양의 풍수지리가 훌륭하므로 그 지형-형국을 이용해서 수도를 조성하면 <마르거나 쇠퇴하지 않는 吉地性>도 계속 확보

63)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8月 庚辰條, 辛卯條;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一, 京都上序條; 卷之三, 漢城府形勝條; 擇里志, 八道總論, 京畿條; 東國輿地備攷, 卷之一, 京都序條, 國都條.

되고, 나아가 그를 바탕으로 태평성대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게다가 사방 산들을 이용, 그 산맥을 따라 도성을 쌓으면 수도방어에도 좋고 더 나아가 국가보전에도 좋다고 보았다.⁶⁴⁾

그리하여 자연 한성의 지형에 맞게 圓形에 가까운 타원형의 도성운곽 형상(shape)이 한성에 이루어진 것이다. 고대 중국 수도들의 정사각형 운곽이 아니요, 중국식을 모방해서 만든 일본의 옛 수도 平成(나라)이나 平安(교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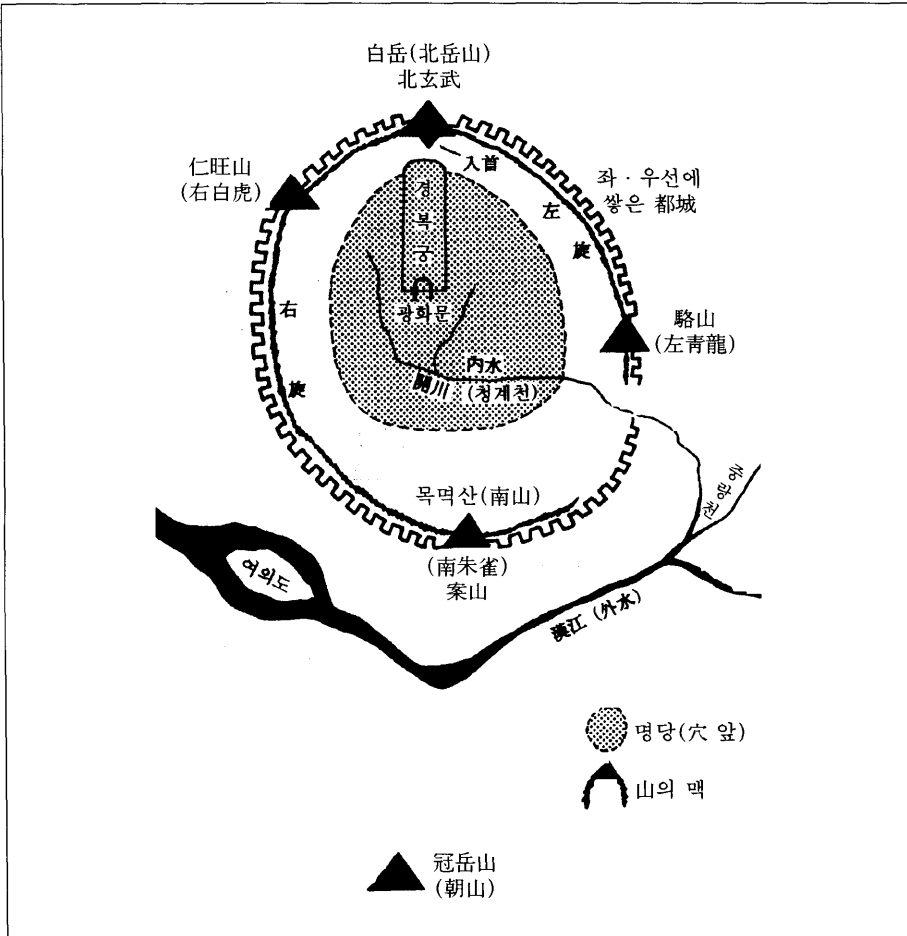


그림 2-9. 首都 漢城의 朝鮮의인 非四角形의 都城 輪廓 形狀
* 風水地理, 朝鮮의 威信, 山利用 都城築造 意志 등의 멋진 반영이다.

64) 任德淳, 1985, 전계 박사논문, pp. 50, 63, 139.

서 볼 수 있는 4각형의 도시 형상도 아닌 朝鮮式의 타원형 도시형상이 조성된 것이다. 그 도성의 윤곽형상을 알아보기 쉽게 그린 것이 그림 2-9이다.

조선의 정부가 “조선”이라는 국명을 明의 인정을 받아 사용키로 하였고⁶⁵⁾, 중국의 〈남-북 기본축 조성 및 左祖右社〉의 원리 기준도 수용하였지만 도성 윤곽 형상조성에는 결코 중국식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것은 실로 우리가 주목하여 특기할만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그 바탕에는 한양의 풍수지리적 길지 지형을 살려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四山地形의 잠재적 유용성을 손상함이 없이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는 〈풍수관 바탕의 의식〉과 山地이용의 수도방어관이 크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도 한성 조성에는 「주례」의 기준들이 선택적으로 원용되었고, 오행-유교德目的 사상도 도입되어 수도경관 조성에 쓰였으며, 풍수이론-개념 중에서 한양(한성) 지형에 적절한 것들도 끌어다 이용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수도 한성은, 外來 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당시 조선적 현실과 필요에 입각해서 조성된 수도경관(capital's landscape)을 그 속에 지니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례」, 오행, 유교, 풍수사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적 宇宙(cosmos)를 〈한성 땅〉에다 실현한 것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일국의 수도에다 그 나라 사람들(엘리트들)의 세계관(토착화된)에 맞는 작은 우주를 꾸며 놓는다는 것은 국가 정통성 수립이나 자기 실존성(개성)의 확보·제시라는 면에서 보아 가치있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正宮의 象徵化

앞에서는 수도 한성의 전체적 시각 내지 차원에서 그의 상징적 개성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부분적 차원〉의 것이면서도 수도 상징화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들을 논의키로 한다. 이런 각도에서 필연적으로 부상되는 것이 景福宮이다.

鄭道傳이 중국 「詩經」의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즉 “이미 술에 취하고 또한 이미 덕에 배부르니 임금께서는 영원히 빛나는 복(경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는 시귀에서 따다 이름지은 경복궁은 새 왕조 조선의 정

65) 朝鮮經國典(鄭道傳, 1394), 上, 國號條.

궁이다. 한양천도 즉시 중요한 국가적 상징인 종묘와 함께 조성이 시작되어 1년 후인 1395년 초가을에 준공된 궁성이다.

정궁은 국가 최고의 권위자이며 상징적 인물인 군왕의 거처며 집무처이다. 그러한 정궁 안에 正殿(가령 근정전이나 창경궁의 명정전)을 따로 지어놓고 그 앞에서 登極儀式과 같은 국가적 상징성이 아주 큰 행사가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그 정궁은 또한 국가적 위신(prestige)과 국가적 정통성(legitimacy)을 내외에 보여주고 확인하는 최고의 상징건물이 된다.

당시 조선조정도 정궁의 상징적 중요성을 크게 고려하여 「太祖實錄」에 분명하게 “宮闕 所以示尊嚴 而出政命”⁶⁶⁾ 이라고 써 놓았다. 궁궐은 존엄성을 보여주고 정치-행정적 政命을 산출하여 내보내는 곳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궁궐, 특히 그 중에도 정궁은 그 전면의 大廣路와 함께 가능한한 莊重性(grand manner)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⁶⁷⁾

그럼 구체적으로 경복궁내에 꾸며놓은 수도-국가적 상징들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첫번째로 주목할 것은 정전인 근정전이다. 그 정전 안에는 왕좌가 마련되어 있고 정전 앞 공간에서는 국왕의 등극의식, 국가차원의 중요 행사, 신하들(품계석에 임하여 도열한)의 朝禮받기 등이 행하여지니, 근정전과 그 앞 공간은 곧 국가적 정통성·권위를 보여주고 그것을 상호간 다짐하는 경복궁 내 최고의 상징적 건물이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근정전은 권위를 더욱 효과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위의 지표보다 2단 높은 곳(상월대와 하월대의 2개 高臺 위)에 팔작지붕의 2층건물로 장중하게 지어졌다. 현재에도 목조건물로는 근정전이 전국 최대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높은 그 정전안에 至高의 존재인 왕의 용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 정전은 옥좌의 건물로서 국왕의 권위를 뒷받침하여 주었으니 근정전은 실로 전각건물 중에서는 최고 최상의 상징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근정전 앞에 남-북 방향으로 2줄로 늘어선 총 24개 品階石들의 질서있는 배치는 왕의 권위를 가중시켜 주는 경관구실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 주목할 것은 근정전을 중앙에 두도록 만들어진 4각형의 上高臺

66) 太祖實錄, 卷第六, 太祖 3年 11月 己亥條.

67) E. F. Bergman, 1975, 전게서, pp. 182-184.; J. H. Johnson, 1972, *Urban Geography*, Oxford: Pergamon, p. 29.; 任德淳, 1982, 전게 논문, pp. 184-185.

(상월대)이다. 그림 2-10에서 보면 下高臺(하월대)도 4각형의 고대이나 상고대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근정전에 가장 가까운 고대이기도 하다. 4각형의 상고대와 그 상고대 내 근정전의 중앙 입지는 그 또한 오행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2-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월대의 북변 중앙에 현무, 남변 중앙에 주작, 동변 중앙에 청룡, 그리고 서변 중앙에는 백호의 石像을 세워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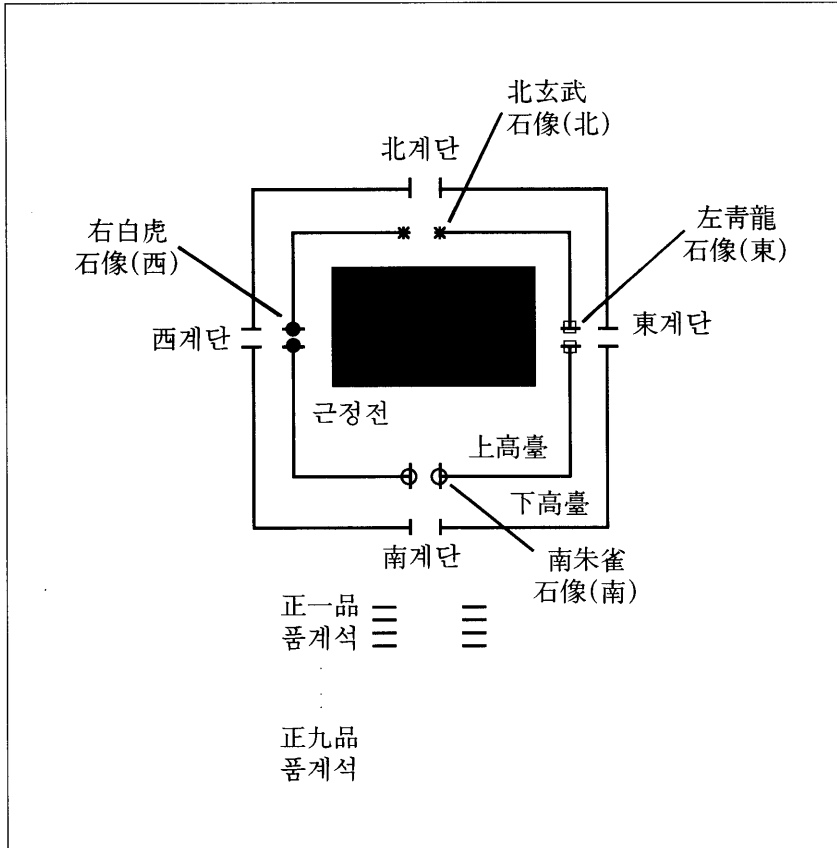


그림 2-10. 中央 근정전과 그 주위 四方의 象徵的 造成

* 五行思想이 각인된 경관이다.

** 중앙의 王을 靑龍 白虎 玄武 朱雀이 보호한다.

은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4각형 상월대의 중앙은 어떻게 된 것인가? 黃龍 대신 赤色の 龍(한국은 천자의 나라가 아니라 가운데 색인 황색을 못쓰고)을 상징하는 왕의 옥좌가 들어앉혀져 있는 근정전 건물이 세워져 있

는 것이다. 오행사상에서는 북은 水-현무, 남은 火-주작, 동(좌)은 木-청룡, 서(우)는 金-백호, 그리고 중앙은 土-황룡인데 위에 소개한 상월대(상고대)의 사방 각 가운데에 세운 상서로운 수호 동물들, 즉 현무, 주작, 청룡, 백호와 중앙의 왕좌건물 근정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옛부터 중요시해 온 오행사상을 반영해주는 경관이다. 물론 4개의 수호석상들은 중앙의 왕(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특히 중앙의 터돋움(상·하 두 월대 조성)과 그 위에 세운 근정전, 그리고 그 안의 왕좌(용좌)는 바로 <높아서 고귀하며 중심이어서 성스러운 것>⁶⁸⁾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물들이다. 결국 위와 같은 근정전과 그 주위의 경관조성은 中心聖化 지향의 오행적 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세번째로 주목할 것은 경복궁 내에 강녕전(북)-근정전(중)-광화문(남)에 이르는 남-북축이 조성되어 있는 점이다. 이 南-北軸上에 강녕전, 향오문, 思政殿, 사정문, 근정전, 근정문, 영제교(禁川橋), 흥례문, 광화문이 일렬을 이루면서 입지토록 하였는데(그림 2-11), 강녕전은 왕의 거소(침소)요, 사정전은 왕의 평시 집무소며, 근정전은 正殿으로 경복궁내 최대 상징이며, 영제교는 성-속의 경계다리이다. 그리고 광화문은 정궁의 정문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은 각기 고유의 상징성(symbolic character)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질서가 강조된 상징적인 기본축 상에 배치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도 각기 상징물이요, 덩어리로 보아도 상징물인데, 특히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경우 그것은 커다란 상징복합(symbolic complex)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어디엔가 남-북 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축이 곧 상징적인 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징적인 축(symbolic axis)이 되려면 그 축 좌 우에 대칭적이거나 대대적 관계를 보여주는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징적인 축은 될 수 없다. 경복궁의 경우에는 그림 2-11에서 알아낼 수 있듯이 강녕전-근정전-근정문-광화문 축의 좌(동) 우(서)에 북으로부터 남으로 生對成, 春對秋, 文對武, 그리고 日對月이 질서있게 對

68) 이은봉(역), 1992. 前掲書, pp.405-408.

Y. Tuan,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pp.38-40.

대대관계를 지닌 기본축으로써 <질서화>된 왕권 및 국권을 상징화한 것이다. 그 경우 질서화라고 하는 것은 곧 혼돈상태(chaos)를 질서상태(cosmos)로 바꾸는 것, 다시 말해서 우주(cosmos)화함으로써 신성화, 규범화, 권위화하는 것을 뜻한다.⁶⁹⁾

대대관계는 음 양간, 춘 추간, 문 무간, 일 월간 등처럼 양자간의 마주보고 어울리는 조화가 곧 균형과 안정을 갖다주는 것으로 여겨져 채택되는 것인데, 이런 식의 대대관계를 지닌 의미있는 기본 축의 형성을 통해 질서화 - 권위화를 성취한 일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중국의 옛 수도인 북경과 장안(서안), 일본의 옛 수도 경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 나이지리아의 조성중인 신수도 아부자 등 동서고금의 수도조성이나 왕궁조성에서 그 예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⁷⁰⁾

네번째 주목거리는 光化門이다. 경복궁에는 동 서 남 북에 각 하나씩 모두 4개의 대문(궁성문)이 세워져 있다. 북문은 神武門, 남문은 광화문, 동문은 建春門, 그리고 서문은 迎秋門이다.

이들 4문 중 남문인 광화문은 도성 안 북부중앙에 입지한 정궁 내의, 상징성 큰 남-북 기본축의 南端에 서게 됨으로써 정문이 된 것이다(그림 2-11 참조). 경복궁내 기본축의 남단에 서지 않으면 정문이 될 수 없다. 정궁 북쪽에는 바로 백악(북악산)이 서있고, 그 기본축 남단의 남쪽, 즉 궁 정문인 광화문 남쪽 밖에만 넓은 터가 있어서 그 넓은 터에 관아, 기타 도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어서 그 관아 시설들을 앞에 거느린 대문인 광화문이 정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궁을 도성안 북부중앙에 둔 점에서 광화문의 정문성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 광화문 남쪽으로는 주작대로(六曹거리; 역시 상징적)가 황토현(현 세종로 4거리 지점)까지 뻗히게 하였다. 광화문이 정궁의 정문이라는 점과 그 정궁 안팎으로 조성된 보다 더 긴 남-북 축(주작대로가 포함된)상의 가운데에 버티고 서게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문은 궁성의 보통문이 아닌

69) 徳久球雄(外, 譯), 1971, 宗教地理學(D.E. Sopher), 東京: 大明堂, p. 50.; 이은봉(역) 1992, 전게서, p. 403.; 李東夏(譯), 1983, 전게서, p. 29.

70) 邢基柱, 1985, “都城계획과 宇宙의 상징주의,” 地理學, 제 32호, 大韓地理學會, p. 34.; 橫山昭市, 1988, 전게서, pp. 12-14, 17-25, 168-174.; 前川知賢, 1981, “大佛開眼과 天平文化,” 日本史要設(倉田康夫 編, 金鐘學 譯), 敎學研究社, pp. 81-82.; 成周鐸(譯), 1993, 전게서, pp. 23-27, 68-74, 168-174.; 任德淳, 1990, 전게서, pp. 247-250.

상징성이 큰 대정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하자면 중국 북경의 天安門에 해당되는 그런 궁성정문이다. 천안문도 궁성 안팎을 지나는 남-북 기본 축상에 있으면서 궁성(정궁)의 정문이요 주작대로(궁성 남쪽의 남-북대로)의 북단에 버티고 서 있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게다가 정문 광화문으로 왕의 政令과 그 집행보고가 출입하였으니 그 문은 실로 왕권과 국권의 크나큰 상징이 아닐 수 없었다.⁷¹⁾

그러한 광화문을 1910년에 이 땅을 식민지화한 일본정부가 머지않아 헐어버리고 그 자리 일대에 식민지 조선 통치를 위해 총독부 청사를 지었던 것이다. 광화문 남쪽 주작대로에서 바라볼 때 주작대로-광화문-근정전-사정전-강녕전으로 이어지는 경복궁 안팎의 장대한 상징적인 남-북 기본축이 총독부 청사, 즉 일본국의 건물로 차단되었고, 동시에 근엄한 정문 그 자체도 없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광화문 제거(이전)는 국가 상징론에서 볼 때, 분명히 면면히 이어온 당시 한국(조선)의 국가적 위엄을 소멸시켜 버리려고 저지른 일본 정부 나름의 〈한국상징의 파괴〉라고 확인할 수 있다.⁷²⁾ 그 정문이 1968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비록 시멘트-콘크리트 위주의 축조물일지언정 국가 정통성이나 국가 위신면에서 볼 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太祖實錄 등 고문헌들과 漢城 四山禁標圖 등 고지도 등을 기본자료로 삼고, 4대문 안팎의 현장답사를 통하여 본 논제의 내용들을 탐구하였다.

이 탐구에서 얻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의 初代 君主 태조 이성계와 그의 최고위급 중신들은 易性革命(1392년 7월;음력, 이하 같음)에 기인한 遷都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

71) 任德淳, 1982, 전계 논문, p. 184.

72) 任德淳, 1982, 상계 논문, p. 184.; 이몽일, 1992, “景福宮과 조선총독부 청사의 風水地理的 관계,” 이병근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p. 348.

았다. 수도 터 탐색과정(1392.8 - 1394.8)에서 각 후보지의 수도풍수설상의 적절성 여부와 전국통치 효율성에 직결되어 있는 중앙적 위치 및 높은 접근성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이만 일어났을 뿐 지역간 수도 유치 경쟁에 관련된 논쟁이나 정치적 절충 등의 작업은 없었다. 군주와 몇몇 중신들이 각 후보지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군주가 그 중 하나를 최종 결정(선택)하는 비교적 쉬운 선정과정을 거쳤다.

둘째, 역성혁명으로 왕이 된 이성계에게는 구체제 지향성도 없앨 수 있고 舊 권문세가들의 기존 기반도 신속히 와해시킬 수 있으며, 그리하여 君民이 함께 심기일전한 가운데 <새 정치>를 영위할 수 있는 <새 수도>가 필요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수도 松京(개성)의 정치적 대체물로 한양(현 서울)이 채택(1394.8)되었다.

셋째, 지리적으로 볼 때 한양은 사이트(site) 내부구조가 수도풍수설로 보아 왕궁 등을 신축하여 국가를 경영하는데에 알맞고, 수도방어 지리론상으로도 사위 산들에 도성(수도 성곽)을 쌓아 수도를 방어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조선초에 수도로 정해졌다.

또한 시츄에이션(situation) 상 한양은 전국에 대한 중앙적 위치와 높은 접근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도로 정해진 것이다.

넷째, 처음 한성(수도로 된 뒤 개명된 이름)이 조선수도로 조성될 때, 아래와 같은 외래적 및 전래화 토착적인 사고 - 관념들이 복합·융합되어 조선적인 것으로 되고, 그것이 수도경관에 각인되었다.

- ① 중국적 세계관이 담겨있는 「周禮」 考工記로부터는 거기 실려있는 여러 기준 중 조선 및 한성의 지리, 필요, 최소한도의 수도-국가위신 지키기 등에 맞도록 도성내에 좌묘우사 꾸미기, 정궁 밖에 주작대로 만들기, 그리고 경도(중국 수도의 대로)의 次下인 환도(중로)의 폭을 제후국 수도 대로의 폭으로 삼기(1단계 하향선택)의 3가지만 채택하였다.
- ② 4대문의 위치선정 및 그 명명과 중앙의 보신각 세우기에 있어서는 오행사상과 유교의 5가지 가치(덕목)가 함께 이용되었고, 坊名(洞名)들의 작성에는 유교적 가치들이 크게 이용되었다.

③ 전래적이고도 거의 토착화한 풍수관에 의해 한성의 사위 4산을 4개의 수호신으로 삼고, 중앙의 넓은 명당을 활용하도록 하였고, 그들 사산과 그 줄기들을 파손하지 않고 그위에 방어용 도성을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쌓았다(그림 2-9). 「주례」 기준을 주체성 없이 그대로 따랐다면 한성의 도성은 이곳의 풍수지형을 무시한 채 북경이나 서안(장안)의 경우처럼 정사각형이나 이에 아주 가까운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도록 쌓여졌을 것이다.

이처럼 초기 한성은 중국적인 「주례」기준들의 일부, 오행-유교 이념, 그리고 풍수적 지형관 내지 풍수적 세계관과 같은 3가지 사고-관념에 복합적으로 의존하여 그 도시전체적 틀이 짜여진, 자기실존성 있는 〈조선적인〉 수도로 꾸며졌다.

다섯째, 바로 위 넷째와 같은 식의 수도전체적 시각에서가 아닌 미시적 시각에서 수도 상징성을 염두에 두면, 경복궁이 큰 주목거리로 떠오른다. 근본적으로는 조선 수도 한성의 정궁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 정궁 내부의 것들을 조금 상세히 논의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경복궁 전체의 상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준다.

- ① 근정전은 정궁의 정전이다. 그 안에는 正式 왕좌가 설치되어 있고, 전각 앞의 공간(품계석이 들어선 뜰)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장중한 의식(가령 등극의식)이 행해졌다. 그리하여 경복궁내 최고의 국가적 내지 왕권적 상징건물이다.
- ② 근정전을 중앙에 둔 상고대(상월대)는 오행사상의 반영이요, 그런 가운데 〈중앙〉의 왕(왕좌, 근정전)은 〈사방〉의 현무 주작 청룡 백호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졌다. 그들 4 수호동물의 石像들이 상고대 각변 중간에 세워져 왕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4각형의 상고대는 가운데의 왕을 보호하도록 오행사상을 염두에 두고 상징성있게 조성되었다.
- ③ 경복궁 내에 조성된 강녕전(북) - 근정전(중) - 광화문(남) 기본축이 큰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왕권 내지 국권의 〈권위화 - 질서화〉를 위해 정궁 내에 조성한 기본축이 바로 이 남-북축이다. 이 축은 정궁 정문(광화문) 밖으로 계속 뻗어 주작대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 ④ 광화문은 정궁의 正門이어서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 정궁내 남-북 기본축의 남단에 세워져 있는, 왕의 정령 출입문이었다. 문 남쪽 주작대로로 위 기본축을 연장시켜 볼 때에는 광화문은 황토현 (현 세종로 4거리)에서 왕의 침소인 강녕전에 이르는 <보다 더 긴> 남-북 기본축의 중간에 우뚝 서 있게 만들어진 상징성 큰 궁성정문이 된다.

그러한 광화문이 일제 때 그 자리에서 제거되었다가 1968년 복원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의 회복이나 국가위신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광화문은 해당왕조는 끝났어도 현 수도 서울의 역사적 정통성의 지속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이면서, 현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징물 (역사성에 바탕을 둔)로 계속 중시되어야 할 건축물이다.

끝으로 필자의 제언을 말함으로써 본 논고를 끝내고자 한다. 수도는 그 안에 역사 오랜 국가적 상징(물)들을 잘 간수해서 지니고 있을수록 그윽한 맛이 있고 감정적인 애착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맛과 애착을 바탕으로 해서 다수 국민들의 수도애나 국가애가 싹트고 자라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자기실존성도 인정받기가 쉽다. 외국인들이 그런 수도경관을 보고 감상하면서 한국의 역사 오랜 자기실존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장구한 600년 수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은 위와 같은 애착 및 인정의 좋은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으니 당국자들의 적극적 의지만 있게 되면 실로 근사하고도 역사성 깊은 수도로 계속 남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치 큰 조선 수도 시대의 상징들을 잘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도 필자는 도성의 서대문인 돈의문(서대문)의 복원을 맨 먼저 말하고 싶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철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니 철거하고 나면 그 자리에 禁川과 금천교(영제교)를 복원하면 좋을 것이다. 금천교는 정궁내 강녕전-근정전-광화문 기본축 상의 聖俗 갈림의 중요한 상징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종로(육조거리)에 있던 조선조 한성부청(경조아문)도 그것이 수도행정청의 청사였으므로 일부만이라도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